

Part.4

국내 기부, 자원봉사 관련  
조사연구 동향 분석

노연희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 교수





## I. 연구 목적 및 방법

### 1. 연구 목적

2001년 아름다운재단은 국내 최초로 한국인의 기부와 자원봉사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전국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후 지금까지 2년마다 Giving Korea란 이름으로 한국의 기부 및 자원봉사지수를 발표하고 있다. 아름다운재단의 Giving Korea는 기부 및 자원봉사라는 시민사회의 대표적인 자원활동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를 구축하고 현재까지 약 10여년 이 넘는 기간 동안 기부와 자원봉사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해왔다. 또한 이러한 조사활동은 간접적으로 기부와 자원봉사에 대한 학문적 관심을 갖도록 하는 기반이 되어 많은 연구 활동을 자극하는데 기여해왔다<sup>18)</sup>.

그러나 2000년대 이후 민간 비영리부문 그리고 이를 지지하기 위한 시민들의 자원활동으로서 기부와 자원봉사에 대한 실천현장의 관심과 학문적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아름다운재단의 Giving Korea 이외에도 많은 공공 또는 민간 연구기관들이 기부 및 자원봉사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조사 연구를 실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보건복지부는 2006년부터 복지패널 데이터를 구축하면서 ‘사회적 환경에 대한 인식’ 조사영역에 기부와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설문 문항을 포함하여 기본적인 현황파악을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통계청은 매년 실시하는 사회조사에서 2011년부터 ‘사회참여’ 조사영역에 기부와 자원봉사에 대한 설문 문항을 포함하고 있다.

그동안 각 조사 기관들이 실시한 기부와 자원봉사 관련 조사연구들은 전반적인 실태 부분에서는 유사한 결과를 보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상이한 결과들을 제시하기도 한다. 이러한 차이는 몇 가지 이유 때문에 발생한다고 추론할 수 있다. 우선, 각각의 조사기관들이 수집한 자료나 그 결과를 공유하거나, 구체적인 조사내용과 그 결과에 대한 의견 교환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각 조사연구에 포함된 기부 및 자원봉사에 대한 문항들은 동일한 사항에 대한

18) 학술연구정보서비스(<http://www.riss.or.kr>)을 통해서 ‘기부’나 ‘자원봉사’를 검색어로 하여 2001년 이후 국내에서 진행된 개인의 기부나 자원봉사를 주제로 한 연구를 검색한 결과 약 129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것이라고 할지라도 질문하는 방식이나 내용에서 미묘한 차이를 보이기도 하며, 이러한 차이는 궁극적으로 조사결과의 차이를 초래하게 된다. 두 번째로는 각각의 조사연구들이 조사대상, 조사방법 등에서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조사대상이 개인이냐 또는 가구이냐에 따라 조사결과는 다를 수 있으며, 또한 조사대상의 연령을 19세 이상으로 하느냐 또는 15세 이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도 기부 및 자원봉사의 참여율 또는 기부액수나 자원봉사참여횟수 등 매우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결과의 차이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 조사기관에서 기부 및 자원봉사와 관련해서 내놓은 상이한 조사결과들은 국내 기부와 자원봉사에 대한 전반적 동향을 파악하기 어렵거나 혼란을 초래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동시에 기부와 자원봉사 관련 각종 조사들의 설문 문항들이 상당 부분 중복되면서 조사의 비효율성 등도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아름다운재단의 Giving Korea를 비롯하여 기부 및 자원봉사와 관련 있는 전국적 범위의 조사연구 현황을 파악하고 이들의 조사내용과 조사결과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국내 기부와 자원봉사 관련 조사연구들이 어떤 유사성과 차이점을 지니고 있는지를 탐색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Giving Korea의 기본적인 조사내용, 그리고 자료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활용여부 등에 관한 검토를 통해, 향후 조사가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 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아름다운재단의 Giving Korea를 포함하여 정기적으로 기부와 자원봉사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는 조사연구의 현황을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각 조사연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조사연구 결과는 어떻게 제시되었는지를 검토할 것이다. 그리고 조사연구들 사이의 공통점과 차이점 등을 비교, 분석하여 국내에서 진행된 기부와 자원봉사 관련한 조사연구의 특징 등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하였다.

첫째, 기부 및 자원봉사와 관련하여 국내에서 어떤 조사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Giving Korea를 통해 구축된 자료와 같이 특정지역이 아닌 전국을 조사범위

로 하여, 정기적으로 수행되는 조사연구를 탐색하였다. 그리고 이런 조건에 맞는 경우 조사연구의 내용이 Giving Korea의 조사내용과 중복되거나 유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둘째, 각 조사 기관이 실시한 기부와 자원봉사 관련 조사연구의 설문 문항과 분석 결과를 유형별로 분류하고 비교, 분석하였다. 설문 문항과 분석 결과에 대한 분류는 Giving Korea와 타 조사의 중복되는 문항과 결과, Giving Korea와 타 조사들이 각각 단독으로 포함하고 있는 조사 문항들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단독 문항들의 검토와 분석은 각 조사연구들의 특성을 간접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것이었다. 셋째, 국내 기부와 자원봉사 관련 조사연구들을 비교,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Giving Korea가 지니는 조사연구상의 특징 및 장단점 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 Ⅱ. 국내 기부 및 자원봉사 관련 조사연구 현황

### 1. 조사연구 현황

본 연구는 2000년대 이후 국내에서 실시되고 있는 기부 및 자원봉사에 대한 조사연구의 현황을 파악하였다. 본 연구를 위한 조사연구 현황의 수집 및 비교분석 대상은 조사범위가 특정지역이 아니라 전국인 경우, 정기적으로 자료를 수집했거나 수집한 경우, 조사연구가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나 최근 2년 이내까지 조사를 실시한 경우 등으로 한정하여 선정하였다. 그 결과 기부 관련 조사연구와 자원봉사 관련 조사연구 모두 각각 5곳에서 실시했거나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각 조사연구들의 조사방법 등은 <표 Ⅱ-1>과 같다<sup>19)</sup>.

19) 아름다운재단을 제외한 다른 조사들은 모두 조사 대상자들의 전반적인 생활 현황, 인식 등을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조사내용 역시 대상자들의 일반사항, 생활여건, 경제적 상태, 문화 수준, 사회참여, 복지, 사회적 인식 등으로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다.

| 조사명          | 조사 기관   | 조사시작 연도 및 조사주기  | 최근 조사 연도             | 조사설계(최근조사연도 기준)  |   |   | 조사 내용      |
|--------------|---------|---|----------------------|--|---|---|------------|
|              |         |   |                      | 모집단 및 표본수  | 표본추출  | 조사방법  |            |
| Giving Korea | 아름다운 재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1년</li> <li>• 2년</li> </ul> | 2012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만 19세 이상 전국 성인 남녀</li> <li>• 1,029명</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단계 : 다단계지역 표본추출(조사지점 선정)</li> <li>• 2단계 : 지역별/성 별 / 연 령 별 할당표본추출</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대면면접 조사</li> </ul>   | 기부 & 자원 봉사 |
| 복지 패널        | 보건 복지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6년</li> <li>• 매년</li> </ul> | 2012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5세 이상 가구주<sup>20)</sup>과 가구원<sup>21)</sup> 전체</li> <li>• 5,735가구에 속한 15세 이상의 가구주와 가구원</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 조사에서 선정한 7,072가구 중 유지된 5,335 가구와 신규 가구 400가구</li> <li>* 최초 조사 시 표본추출</li> <li>• 1단계 : 층화확률 비례 추출</li> <li>• 2단계 :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중위소득 60% 이상 가 구 로 절반씩 분류</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직접 면접조사 (CAPI 방법)</li> <li>*CAPI Compute Assisted Personal Interviewing</li> </ul> | 기부 & 자원 봉사 |
| 사회 조사        | 통계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77년</li> <li>• 매년</li> </ul> | 2011년 <sup>22)</su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만 13세 이상 개인</li> <li>• 전국 약 17,000가구 내의 만 13세 이상 개인</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국을 25개 층으로 층화한 후 층별로 가구수를 기준으로 확률비례 계통추출방법을 이용하여 표본추출</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조사원 면접과 온라인 설문조사 병행</li> </ul>   | 기부 & 자원 봉사 |

|                 |             |                 |                      |  |   |   |                     |
|-----------------|-------------|-----------------|----------------------|--|---|---|---------------------|
| 재정<br>패널        | 한국조세<br>연구원 | • 2008년<br>• 매년 | 2011년                | • 전국에<br>거주하는<br>일반 가구<br>• 4,843 가구                     | • 층화 이단계<br>추출  | • 구조화된<br>설문지를<br>활용한<br>대면<br>면접조사           | 기부                  |
| 서울시<br>복지<br>패널 | 서울시<br>복지재단 | • 2008년<br>• 2년 | 2010년                | • 서울시 소재<br>가구<br>• 서울시 소재<br>2,893 가구의<br>가구원<br>6,304명 | • 층화 2단 집락<br>추출<br>* 1차 추출단위<br>: 확률비례<br>계통추출법<br>* 2차 추출단위 :<br>계통추출 | • 구조화된<br>설문지를<br>활용한 대면<br>면접조사<br>(CAPI 방법) | 기부<br>&<br>자원<br>봉사 |
| 가족<br>패널        | 여성정책<br>연구원 | • 2006년<br>• 매년 | 2010년 <sup>23)</sup> | • 만 19세~<br>64세 여성<br>가구원<br>• 7,750가구<br>8,666<br>가구원   | • 확률비례계통<br>추출방법  | • 구조화된<br>설문지를<br>활용한 대면<br>면접조사<br>(CAPI 방법) | 자원<br>봉사            |

<표 3-1> 기부 및 자원봉사 관련 조사연구 현황

기부와 자원봉사에 대한 전국적 조사연구의 현황을 알아본 결과 매년, 혹은 2년 주기로 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조사의 경우는 2000년대 이전부터 한국사회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오다가 2011년 기부와 자원봉사에 관한 설문 문항을 포함하기 시작하였다. 사회조사를 제외한 모든 조사연구들은 2000년대 이후에 기부와 자원봉사에 관한 내용을 조사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대부분의 조사연구들은 정기적으로 조사를 지속하고 있지만 일부 조사들은 조사 자체를 중단했거나 또는 조사를 진행하더라도 기부나 자원봉사 관련 조사는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서울시복지패널은 2010년 이후에는 조사 자체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고, 여성가족

20) 가구주 : 한 가구를 대표하는 가장이나 배우자 개인을 의미한다.

21) 가구원 : 한 가구를 구성하는 가족 구성원들을 의미한다.

22) 사회조사는 10개 부문으로 조사범위를 구별하고 매년 5개 부문씩 선별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10개 부문 : 가족, 노동, 보건, 환경, 교육, 소득과 소비, 복지, 문화와 여가, 안전, 사회참여). 기부와 자원봉사는 조사범위 중 '사회참여'에 속하며, 2011년에는 복지, 사회참여, 문화와 여가, 소득과 소비, 노동 부문에 대한 조사가 실시되었다.

23) 여성가족패널은 2012년까지 매년 조사결과 보고서를 발행하였으나 기부와 자원봉사 관련 조사는 2010년 조사가 마지막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패널은 2006년부터 2012년까지 2년 주기로 조사를 실시했지만 2010년 이후에는 기부와 자원봉사에 관련한 조사는 실시하지 않았다.

그리고 본 보고서에서는 다루지 않았으나 여성가족부와 대한가정학회에서 주관한 가족실태조사<sup>24)</sup>, 문화관광부에서 주관한 국민여가활동조사<sup>25)</sup>에서는 조사 항목들 중의 하나로서 여가활동실태 등을 알아보면서 자원봉사 활동 정도를 간략하게 파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실태조사와 국민여가활동조사는 자원봉사와 관련한 조사 내용이 매우 간단하거나 조사 범위가 구체적이지 않아서 타 조사들과 비교, 분석이 어려웠기 때문에 본 보고서의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sup>26)</sup>.

아름다운재단의 Giving Korea, 통계청에서 주관하는 사회조사, 보건복지부가 관장하는 한국복지패널, 그리고 한국조세연구원의 재정패널은 정기적으로 조사를 실시하는데, 이들 조사연구의 기본적인 목적은 다른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조사목적의 차이는 각 조사연구들이 포함하고 있는 기부와 자원봉사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내용들의 차이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우선 Giving Korea는 한국인의 기부와 자원봉사활동의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고자 하는 조사 목적이 명확하며, 조사의 내용 역시 이 두 가지 자원활동의 다양한 측면을 다루고 있다. 또한 Giving Korea는 2001년 국내 최초로 기부와 자원봉사에 관한 조사를 실시한 이후 기부와 자원봉사 참여율, 규모 등 매우 기본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하면서 조사시점에 따라 이슈가 되는 내용들을 부가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반면 사회조사나 복지패널과 같은 조사연구는 이 두 가지 활동 이외에 한국인의 삶 전반에 관한 실태파악에 초점을 두면서 그 중의 일부 내용으로 기부 및 자원봉사활동을 다루고 있어서 기부나 자원봉사와 관련한 구체적인 조사내용은 매우 한정되어 있다. 왜냐하면 사회조사는 우리 사회 전반의 현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수치화해야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고, 복지패널은 보건, 복지와 관련한 전반 현황을 파악하여 정책 수립의 근거로 삼는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조세연구원이 진행하는 재정패널은 기본적으로 한국인의 소득과 지출 등 경제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목적으로 하면서 돈으로 지출된 기부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

24) 2005년,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전국 2,500 가구의 가구원 4,754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으나 현재는 조사를 중단하였다. 확인 결과 '다문화 가족실태조사' 등으로 조사 대상을 좀 더 구체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25) 2006년부터 2년 주기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제주도를 제외한 15세 이상의 가구원 3,000명을 조사 대상으로 하고 있다.

26) 가족실태조사의 경우 주요 여가활동이 자원봉사라고 응답한 사람이 극소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 2010년 가족실태조사 결과, 지난 6개월간 가족과 함께 한 여가활동 중 자원봉사 0.2%(평일), 0.1%(휴일). 또한 국민여가활동조사는 여가활동의 보기로서 문화예술관람, 문화예술참여, 스포츠관람, 스포츠참여, 관광, 취미나 오락, 휴식, 기타 사회활동을 제시하면서 '기타 사회활동'의 범위를 '동아리활동 참여, 자원봉사 등'으로 폭넓게 제시하였다.



역시 매우 제한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서울시복지패널의 경우는 조사 목적이 서울시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파악이기 때문에 조사 대상을 서울로 한정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기부 및 자원봉사 관련된 조사결과가 서울시민에 한정될 수밖에 없다.<sup>27)</sup>

조사연구의 대상과 방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Giving Korea는 전국의 19세 이상 개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반해 복지패널, 사회조사, 재정패널, 서울시복지패널은 기본적으로 가구를 조사단위로 하고 있지만, 실제 조사 내용은 각 가구에 속한 가구원을 단위로 하고 있다. 이들 조사연구의 경우 조사대상이 되는 가구원의 연령은 15세 또는 13세까지 포함하여 Giving Korea에 비해 광범위하였다. 그러나 여성가족패널의 경우는 19세~64세까지의 여성가구원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가구단위로 조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일반시민대상을 대상으로 한 조사연구로서의 대표성을 지니기에는 한계를 지닌다. 조사대상의 규모는 Giving Korea를 제외한 조사연구들이 모두 4,000~5,000명에 달하는 가구원을 포함하여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Giving Korea는 약 1,000여명 정도에 불과해 가장 소규모 조사연구이다. 이 중 가장 큰 규모로 조사가 이루어지는 조사연구는 사회조사로서 17,000 가구내의 만 13세 이상의 가구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Giving Korea를 제외한 조사연구들은 패널로 자료를 구축하고 있어서 전반적인 종단적 변화경향을 파악하는데 매우 유리한 점을 지니고 있다. 이에 비해 Giving Korea의 경우는 2년마다 정기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지만, 매년 다른 대상들을 조사하고 있다. 따라서 조사 시점에서의 횡단적 현황에 대해서는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지만, 기부나 자원봉사의 행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분석하는 것은 한계를 지닌다.

## 2. 각 조사연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다음으로 기부와 자원봉사에 대한 전국적 조사연구에서 나타난 기본적인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파악하였다. 이러한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무엇보다도 각 조사연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27) 서울시복지패널은 전국을 조사의 범위로 하지는 않지만, 서울이 우리나라의 수도로서 다른 지자체와 비교할 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시민들의 생활과 인식의 흐름을 선도할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본 연구에 포함하였다.

점에서 중요하다. 즉 조사대상의 연령분포, 성별, 또는 경제적 수준이 어떠한가에 따라 이후의 상이한 조사결과를 해석하는 기반이 될 수 있다. 이러한 특성들은 또한 기존의 연구들에서 기부와 자원봉사에 영향을 미치는 기본적인 요인들로 제시되어왔으며, 조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느냐에 따라 조사결과에서 보여주는 추정치가 모집단과 비교할 때 과소 또는 과다 추정이 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각 조사연구에서 나타난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표 II-2>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각 조사연구에서 나타난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가장 최근의 결과보고서를 기반으로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Giving Korea는 일반 개인 1,029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반면, 나머지 5개 조사들은 조사대상을 가구를 기본으로 하여 그 가구 내 가구주와 가구원(여성가족패널의 경우 가구주와 여성응답자)로 구별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복지패널은 5,735가구에 속한 가구주와 가구원을 대상으로, 사회조사는 전국 약 17,000 가구 내의 13세 이상 개인, 재정패널은 전국 4,843 가구의 가구주와 가구원, 여성가족패널은 7,750가구의 8,666가구원, 서울시복지패널은 2,893가구의 가구원 6,304명이 표본에 포함되었다.

성별 구성비율을 살펴보면 Giving Korea는 남성 49.4%, 여성 50.6%로서 거의 비슷한 비율을 보이고 있다. Giving Korea를 제외한 조사들은 가구주와 가구원에 따라서 남성과 여성의 구성비율이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가구주의 경우 대체로 남성의 비율이 80% 내외로 높게 나타났다(복지패널 81.32%, 사회조사 76.6%, 재정패널 77.8%, 여성가족패널 85.2%, 서울시 복지패널 74.8%). 그러나 이러한 조사연구들도 개별적인 가구원의 구성은 Giving Korea와 마찬가지로 성별구성이 비슷하게 보고되었다. 단, 여성가족패널의 경우 가구주와 함께 여성만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기부나 자원봉사의 경우 각 가구원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표본의 성별 구성은 모든 연구가 유사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연령대를 보면 Giving Korea는 40~49세(22.0%)와 60세 이상(20.3%)가 높은 비율을 보였다. 다른 5개 조사는 가구주와 가구원으로 구별하여 그 구성비율이 보고되고 있다. 기부와 자원봉사 설문 대상이 되는 가구원의 연령별 분포에 초점을 두고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눈에 띄는 결과는 20세 이하의 구성인데, 대부분 복지패널, 사회조사, 재정패널의 경우는 모두 25% 이상의 비율을 보여준다. Giving Korea의 표본과 비교할 때 비교적 높은 비율인데 이는 연구대상자체가 10대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10대가 연구표본에 포함되는 경우는 기부나 자원봉사의 결과에 활동참여율과 실질적인 기부금액 및 자원봉사회수 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연령별 구성에 있어서 기부나 자원봉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또다른 요인은 60세 이상의 고령인구의 비

율이다. 기존의 연구들은 기부나 자원봉사의 경우 연령이 높을수록 활동에의 참여, 기부액 또는 자원봉사 회수 등이 높다는 결과를 보여주는데 사회조사의 경우 60세 이상의 비율이 30% 이상, 그리고 서울시 복지패널의 경우 거의 30%에 달하여 다른 조사연구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기부와 자원봉사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되는 학력분포를 보면 Giving Korea와 다른 조사연구들이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중졸이하의 학력이다. Giving Korea의 경우 중졸이하가 18.3%에 불과한 반면, 복지패널, 사회조사, 재정패널, 및 서울시 복지패널의 가구원의 경우 중졸이하가 약 25% ~ 43% 정도로 분포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Giving Korea를 제외한 조사연구들의 조사대상이 10대 이하의 가구원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가구별 평균소득은 사회조사를 제외한 Giving Korea, 복지패널, 재정패널, 여성가족패널, 서울시 복지패널 등 5개 조사에서 파악하였는데, 복지패널은 연간 경상소득을 파악하였고 그 외 4개 조사는 월 평균 소득이나 월 평균 경상소득을 조사하였다. 다른 조사결과에 비해 Giving Korea의 경우 월 200만원 이하의 가구소득의 비율이 비교적 낮은 편이다. 이는 복지패널이나 서울시 복지패널의 경우는 복지관련 전반적 사항에 대한 조사를 위해 저소득층의 비율이 다소 높게 표집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다. 이러한 가구소득의 상이한 결과는 기부 및 자원봉사 참여율, 기부액 및 자원봉사참여회수 등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가구소득과 함께 실질적인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되는 가구원수는 Giving Korea를 비롯한 5개 조사가 모두 파악하였다. Giving Korea 조사 결과에 의하면 가구원수는 4명(41.7%)가 가장 많았다. 모든 조사연구들이 4인 가구의 비율이 가장 높는데, 이를 보면 복지패널 26.50%, 사회조사 35.5%, 재정패널 26.4%, 여성가족패널 34.4%, 서울시복지패널 28.2%로 Giving Korea에 비해 그 비율을 다소 낮았다.

종교여부 역시 기부나 자원봉사활동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요인으로 지적되는데, Giving Korea와 복지패널, 서울시복지패널에 조사되었다. Giving Korea 조사 결과 종교가 있는 응답자(50.4%)와 없는 응답자(49.8%)가 비슷한 비율이었는데, 가구원을 대상으로 보면 복지패널의 결과가 유사하였으며, 가구주만을 대상으로 하는 서울시복지패널의 경우도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외에 혼인상태, 지역분포, 가구형태 등의 기타 내용들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혼인상태를 볼 경우 Giving Korea를 포함하여 모든 조사연구들이 혼인상태이거나 혼인의 경험이 있는 사람의 비율이 70% 이상으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지역 분포 역시 Giving Korea와 복지패널만 제시하고 있었는데 복지패널은 가구와 가구원을 구별하여 각각의 지역별 분포 인원만을 제시하였다. 지역을 구별하는 기준이 다르지만 두 조사 결과 모두 서울, 경기 등의 수도권에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가

구형태의 경우는 복지패널, 재정패널, 여성가족패널, 서울시복지패널 4곳에서 조사되었다. 복지패널과 서울복지패널의 경우는 사회복지전반에 대하여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가구, 소년소녀가장가구, 장애인 가구, 모부자가구 등 비교적 취약한 가구형태를 일정정도 표본에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특성/조사명   | Giving Korea   | 복지패널  |  | 사회조사                          |  | 재정패널  |  | 여성가족패널  |           | 서울시 복지패널   |  |
|----------|--|---|--|-------------------------------|--|---|--|---|-----------|--|--|
| 최근 조사 연도 | 2011년  | 2012년   |  | 2011년                         |  | 2011년<br>*결과보고서에서 제시한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2010년이 최신자료임 따라서 본 자료에서 인용한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2010년 자료임.                      |  | 2010년<br>*2012년까지 조사했으나 기부, 자원봉사 관련 조사는 2010년까지만 진행함. |           | 2010년  |  |
| 전체 응답자 수 | 1,029명   | 5,735가구<br>가구에 속한 15세 이상 가구주와 가구원   |  | 전국 약 17,000가구<br>내의 13세 이상 개인 |  | 전국 4,843가구  |  | 전국 7,750가구의<br>8,666가구원                               |           | 서울 2,893가구의<br>가구원 6,304명  |  |
| 대상 구별    | -  | 가구주   | 가구원  | 가구주                           | 가구원  | 가구주   | 가구원  | 가구주   | 여성<br>응답자 | 가구주  | 가구원  |
| 성별       | 남 508명,<br>49.4%<br>여 521명,<br>50.6%   | 남 81.32%<br>여 18.68%  | 남 50.11%<br>여 49.89%   | 남 76.6%<br>여 23.4%            | 남 49.3%<br>여 50.7%   | 남 77.8%<br>여 22.2%  | 남 48.2%<br>여 51.8%   | 남 85.2%<br>여 14.8%                                    | 여 100%    | 남 74.8%<br>여 25.2%   | 남 45.5%<br>여 54.5%   |
| 연령       | 19~29세 : 191명, 18.6%<br>30~39세 : 211명, 20.5%<br>40~49세 : 226명, 22.0%<br>50~59세 : 192명, 18.7%<br>60세 이상 : 209명, 20.3% | 20세 미만 : 0%<br>20~30세미만 : 3.53%<br>30~40세미만 : 17.40%<br>40~50세미만 : 27.29%<br>50~60세미만 : 24.65%<br>60~70세미만 : 13.42%<br>70~80세미만 : 10.21%<br>80세이상 : 3.50% | 20세 미만 : 22.59%<br>20~30세미만 : 13.85%<br>30~40세미만 : 16.25%<br>40~50세미만 : 17.17%<br>50~60세미만 : 14.18%<br>60~70세미만 : 8.29%<br>70~80세미만 : 5.62%<br>80세이상 : 2.06% | -                             | 13~19세 : 11.1%<br>20~29세 : 14.8%<br>30~39세 : 18.9%<br>40~49세 : 19.8%<br>50~59세 : 16.8%<br>60세이상 : 18.5%<br>65세이상 : 13.2% | 미취학 : 5.5%<br>초등졸 : 9.5%<br>중졸 : 9.8%<br>고졸 : 35.3%<br>전문대/4년대졸 : 36.1%<br>대학원석사 : 3.2%<br>대학원박사 : 0.7% | 미취학 : 21.3%<br>초등졸 : 11.3%<br>중졸 : 10.5%<br>고졸 : 29.8%<br>전문대/4년대졸 : 25.2%<br>대학원석사 : 1.8%<br>대학원박사 : 0.4% | 중졸이하 : 28.0%<br>고졸 : 34.7%<br>전문대졸이상 : 37.2%          | -         | 초등졸이하 : 17.4%<br>중졸 : 10.3%<br>고졸 : 28.6%<br>전문대졸 : 31.7%<br>4년제졸 : 5.6%<br>대학원 : 32.0%<br>석사이상 : 6.0% | 초등졸 이하 : 15.3%<br>중졸 : 9.75%<br>고졸 : 31.8%<br>4년제졸 : 31.8%<br>대학원 : 31.8%<br>석사이상 : 4.2% |
| 학력       | 중졸이하 : 188명, 18.3%<br>고졸 : 384명, 37.3%<br>전문대제이상 : 447명, 43.4%<br>모름/무응답 : 10명, 1.0%                                 | 초등졸이하 : 17.62%<br>중졸이하 : 10.38%<br>고졸이하 : 32.66%<br>전문대졸이하 : 9.21%<br>대졸이하 : 22.59%<br>대학원졸이상 : 4.54%   | 초등졸이하 : 25.83%<br>중졸이하 : 9.19%<br>고졸이하 : 28.24%<br>전문대졸이하 : 10.91%<br>대졸이하 : 22.80%<br>대학원졸이상 : 3.04%  | -                             | 초등졸이하 : 17.7%<br>중졸 : 13.6%<br>고졸 : 36.2%<br>대졸이상 : 32.5%  | 미취학 : 5.5%<br>초등졸 : 9.5%<br>중졸 : 9.8%<br>고졸 : 35.3%<br>전문대/4년대졸 : 36.1%<br>대학원석사 : 3.2%<br>대학원박사 : 0.7% | 미취학 : 21.3%<br>초등졸 : 11.3%<br>중졸 : 10.5%<br>고졸 : 29.8%<br>전문대/4년대졸 : 25.2%<br>대학원석사 : 1.8%<br>대학원박사 : 0.4% | 중졸이하 : 28.0%<br>고졸 : 34.7%<br>전문대졸이상 : 37.2%          | -         | 초등졸이하 : 17.4%<br>중졸 : 10.3%<br>고졸 : 28.6%<br>전문대졸 : 31.7%<br>4년제졸 : 5.6%<br>대학원 : 32.0%<br>석사이상 : 6.0% | 초등졸 이하 : 15.3%<br>중졸 : 9.75%<br>고졸 : 31.8%<br>4년제졸 : 31.8%<br>대학원 : 31.8%<br>석사이상 : 4.2% |

|        |  |   |  |   |   |   |   |   |   |   |   |
|--------|--|---|--|---|---|---|---|---|---|---|---|
| 응답자 소득 | *월평균<br>99만이하<br>: 394명,<br>38.3%<br>100-199만<br>: 241명, 23.5%<br>200-299만<br>: 181명, 17.6%<br>300-399만<br>: 114명, 11.1%<br>400만이상<br>: 87명, 8.5%<br>모름/무응답<br>: 11명, 1.1%   | -   | -  | - | - | -   | - | -   | - | -   |   |
| 가구 소득  | *응답자<br>가구의<br>월평균<br>소득<br>99만이하<br>: 56명, 5.5%<br>100-199만<br>: 87명, 8.5%<br>200-299만<br>: 167명, 16.2%<br>300-399만<br>: 272명, 26.4%<br>400-499만<br>: 189명, 18.4%<br>500만이상<br>: 236명, 22.9%<br>모름/무응답<br>: 21명, 2.0% | *가구의 연간 경상소득<br>1,000만원 미만 : 9.51%<br>1,000-2,000만원 미만<br>: 14.10%<br>2,000-3,000만원 미만<br>: 14.17%<br>3,000-4,000만원 미만<br>: 13.26%<br>4,000-5,000만원 미만<br>: 12.92%<br>5,000만원 이상<br>: 36.04%                      |  | - | - | *가구의 월 경상소득<br>100만원 미만: 18.7%<br>100-199만원: 20.0%<br>200-299만원: 19.15%<br>300-399만원: 14.7%<br>400-499만원: 10.2%<br>500-599만원: 6.5%<br>600-699만원: 3.9%<br>700-799만원: 2.6%<br>800-899만원: 1.7%<br>900-999만원: 0.8%<br>1,000만원 이상 : 2.3% |   | *가구 월평균 소득(세전)<br>150만 미만 : 19.8%<br>150-250만 미만 : 20.7%<br>250-350만 미만 : 28.3%<br>350-500만 미만 : 16.6%<br>500만 미만 : 14.6% |   | *가구 월평균<br>소득(세전인지<br>세후인지<br>연급 없음)<br>100만 미만<br>: 23.1%<br>100-200만 미만<br>: 21.1%<br>200-300만 미만<br>: 16.9%<br>300-400만 미만<br>: 13.1%<br>400-500만 미만<br>: 9.7%<br>500만 이상<br>: 16.2% | *월평균소득<br>(세전인지<br>세후인지<br>연급 없음)<br>100만 미만<br>: 16.4%<br>100-200만 미만<br>: 32.1%<br>200-300만 미만<br>: 21.3%<br>300-400만 미만<br>: 12.5%<br>400-500만 미만<br>: 7.5%<br>500만 이상<br>: 9.9%<br>모름/무응답<br>: 0.2% |
| 거주지 분포 | 대도시<br>: 473명, 46.0%<br>중소도시 동부<br>: 372명, 36.2%<br>중소도시 읍면부<br>: 184명, 17.9%  | *가구 분포<br>동부 :<br>81.9%<br>읍면부 :<br>18.1%   | *가구원 분포<br>동부 :<br>82.0%<br>읍면부 :<br>18.0%   | - | - | -   | - | -   | - | -   |   |
| 지역     | 서울<br>: 212명, 20.6%<br>인천/경기<br>: 294명, 28.6%<br>대전/충청<br>: 104명, 10.1%<br>광주/전라<br>: 106명, 10.3%<br>대구/경북<br>: 108명, 10.5%<br>부산/울산/경남<br>: 163명, 15.8%<br>강원/제주<br>: 42명, 4.1%                                       | *가구 수<br>(단위 : 가구)<br>서울 : 938<br>부산 : 408<br>대구 : 329<br>인천 : 327<br>광주 : 231<br>대전 : 183<br>울산 : 146<br>경기 : 894<br>강원 : 204<br>충북 : 201<br>충남 : 316<br>전북 : 309<br>전남 : 332<br>경북 : 417<br>경남 : 421<br>제주 : 76 | *가구원 수<br>(단위 : 명)<br>서울 : 2,847<br>부산 : 1,090<br>대구 : 873<br>인천 : 914<br>광주 : 519<br>대전 : 435<br>울산 : 424<br>경기 : 2,324<br>강원 : 465<br>충북 : 457<br>충남 : 662<br>전북 : 655<br>전남 : 709<br>경북 : 942<br>경남 : 975<br>제주 : 17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가구<br>(원)수 | *가구원수   |  |   | *가구원수   |  |   | *가구 분포  |  |                      |  |  |
|            | 1명 : 79명, 7.7%<br>2명 : 173명, 16.8%<br>3명 : 222명, 21.6%<br>4명 : 429명, 41.7%<br>5명 이상 : 126명, 12.2% | 1인가구 : 20.30%<br>2인가구 : 23.25%<br>3인가구 : 21.01%<br>4인가구 : 26.50%<br>5인가구 : 7.14%<br>6인가구 : 1.48%<br>7인가구 : 0.31% | 1인가구 : 20.3%<br>2인가구 : 23.3%<br>3인가구 : 20.9%<br>4인이상 가구 : 35.5%                                       | 1명 : 16.9%<br>2명 : 22.2%<br>3명 : 25.5%<br>4명 : 26.4%<br>5명 : 7.1%<br>6명 이상 : 1.9% | 1인가구 : 14.1%<br>2인가구 : 21.4%<br>3인가구 : 17.9%<br>4인가구 : 34.4%<br>5인가구 : 9.5%<br>6인가구 : 2.1%<br>7인가구 : 0.4%<br>8인가구 : 0.1%<br>9인가구 : 0.03% | 1인가구 : 16.3%<br>2인가구 : 24.7%<br>3인가구 : 20.6%<br>4인가구 : 28.2%<br>5인가구 : 10.1%  |   |  |                      |  |  |
| 혼인<br>상태   | 미혼 : 245명, 23.8%<br>기혼/이혼/사별 : 779명, 75.7%<br>모름/무응답 : 5명, 0.5%                                   | 배우자있음 : 71.88%<br>사별 : 11.41%<br>이혼 : 7.58%<br>별거 : 1.09%<br>미혼 : 8.04%  | 비해당 : 19.06%<br>배우자있음 : 50.32%<br>사별 : 5.62%<br>이혼 : 3.11%<br>별거 : 0.43%<br>미혼 : 21.37%<br>기타 : 0.09% | -   | 미혼 : 29.6%<br>배우자있음 : 59.9%<br>사별 : 7.0%<br>이혼 : 3.5%  | -   | -   | 미혼 : 2.2%<br>기혼 : 86.9%<br>이혼 : 3.2%<br>별거 : 0.6%<br>사별 : 7.1% | 미혼 : 10%<br>기혼 : 90% | 미혼 : 7.9%<br>배우자있음 : 71.3%<br>이혼 : 5.5%<br>사별 : 13.8%<br>별거 : 1.5% | 미혼 : 19.0%<br>배우자있음 : 62.8%<br>이혼 : 3.0%<br>사별 : 9.0%<br>별거 : 0.9% |
| 종교<br>여부   | 있음 : 518명, 50.4%<br>없음 : 498명, 48.4%<br>모름/무응답 : 13명, 1.3%  | 있음 : 49.14%<br>없음 : 50.86%   | 있음 : 50.49%<br>없음 : 49.51%  | -   | -  | -   | -   | -  | -                    | 있음 : 48.8%<br>없음 : 51.2%   | -  |
| 가구<br>형태   | -   | 단독 : 20.30%<br>모자 : 1.05%<br>부자 : 0.35%<br>소년소녀가장 : 0.31%<br>기타 : 77.99%   | -   | -   | 핵가족 : 70.3%<br>(핵가족 : 부부, 부부+자녀, 한부모+자녀 중 하나)<br>부부단독 : 16.2%<br>부모+미혼자녀 : 47.7%<br>한부모+미혼자녀 : 6.5%<br>1인가구 : 16.9%<br>비핵가구 : 12.8%      | 가구주 부부(1인 혹은 2인)+가구주 자녀 : 67.1%<br>가구주 부부(1인 혹은 2인) : 21.3%<br>가구주 부부(1인 혹은 2인)+가구주 자녀+가구주 부모 : 4.8%<br>가구주 부부(1인 혹은 2인)+가구주 자녀+가구주 배우자 부모 : 1.0%<br>가구주 부부(1인 혹은 2인)+가구주 부모 : 1.6%<br>가구주 부부(1인 혹은 2인)+가구주 배우자 부모 : 0.3%<br>가구주 부부(1인 혹은 2인)+가구주 손자녀 : 0.6%<br>기타 : 3.3% | 단독가구 : 16.3%<br>한부모가구 : 3.1%<br>노인가구(만65세 이상 가구원으로만 구성) : 14.8%<br>장애인가구 (장애인가구원이 있는 가구) : 10.2%<br>장애노인가구 (장애인가구원이 있는 노인가구) : 3.1% |  |                      |  |  |

<표 3-2> 기부 및 자원봉사 관련 조사연구에서 나타난 인구사회학적 특성

### Ⅲ. Giving Korea와 타 조사연구 비교

본 장에서는 아름다운재단을 포함한 각 조사 기관들이 실시한 기부와 자원봉사 관련 조사연구의 설문 문항과 분석 결과를 유형별로 분류하여 비교, 분석을 실시하였다. 설문 문항과 분석 결과에 대한 분류는 기부와 자원봉사로 나누고 각각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세 가지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분류는 질문 방식, 문구, 응답 방식 등의 차이보다는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하려는 목적으로 시도한 것이다. 따라서 설문 문항 등이 다소 상이하더라도 질문의 의미나 내용이 비슷하다고 판단한 내용들을 최대한 같은 유형으로 묶었다.

1. 아름다운재단과 타 조사기관의 중복되는 조사 문항과 결과
2. 아름다운재단 단독 조사 문항과 결과
3. 타 조사기관 단독 조사 문항과 결과

#### 1. 기부 관련 설문 문항 분류 및 조사 결과 비교

기부와 관련한 설문 문항 및 조사 결과를 비교, 분석한 결과 아름다운재단과 타 조사기관이 중복되는 경우, 아름다운재단이 단독 조사한 경우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었다. 타 조사기관에서 단독으로 조사한 문항과 결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1) Giving Korea 및 타 조사연구 중복 문항 및 결과 비교

Giving Korea와 타 조사연구 중 중복되는 내용은 다음의 여덟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1. 기부 관련 기본 사항 : 기부 여부, 기부금액, 기부 횟수 등

2. 기부의 정기성
3. 기부 대상 인지 경로
4. 기부 이유
5. 향후 기부 의사
6. 기부금 지출 희망 분야
7. 유산 기부에 대한 인식
8. 기부 문화 확산

### 1) 기부 관련 기본 사항 : 기부 여부, 금액, 횟수 등

#### ① 설문내용

| 조사명          | 조사 연도       | 설문문항 주요 내용  |
|--------------|-------------|---|
| Giving Korea | 201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난 1년간 기부처별 기부여부</li> <li>• 지난 1년간 기부처별 기부금액 및 기부물품 환산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부: 경조사 관련, 현금, 보시 등 종교적 기부 제외한 순수기부</li> <li>* 기부처: 종교단체, 자선단체, 해외구호, 교육기관, 의료기관, 문화예술단체, 시민단체, 공공기관 및 지역사회, 친척이나 친구 및 가까운 지인, 부랑인이나 노숙인, 정치 관련, 기타</li> </ul> </li> </ul> |
| 복지패널         | 2006 ~ 201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난 1년간 연간 기부총액 : 기부처 구별 없음</li> <li>* 기부처 제시하지 않음</li> <li>* 현금, 물품 환산액 등의 기준 제시하지 않음</li> </ul>   |
| 사회조사         | 201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난 1년간(2010년 7월 15일~7월 14일) 기부경험 유무</li> <li>• 지난 1년간 기부처별 기부횟수</li> <li>• 지난 1년간 기부처별 연간 기부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부처 : 대상자, 언론기관, 모금단체, 종교단체, 직장, 기타</li> </ul> </li> </ul>   |
|              | 2013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난 1년간(2012년 5월 11일~5월 10일) 기부경험 유무</li> <li>• 지난 1년간(2012년 5월 11일~5월 10일) 후원경로별 연간 기부횟수</li> <li>• 지난 1년간(2012년 5월 11일~5월 10일) 후원경로별 현금, 물품기부별 연간 기부금액</li> </ul>   |
| 재정패널         | 2008 ~ 201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난 1년간 가구당 기부금 지출 여부 및 기부금 지출시 금액</li> <li>• 기부분야별 연간 기부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부분야: 정당, 교육기관, 사회복지기관, 문화예술, 종교, 기타</li> </ul> </li> </ul>  |
| 서울시 복지패널     | 2008 ~ 201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난 1년간(전년도 1월 1일~12월 31일) 현금이나 물품 기부 여부</li> <li>• 지난 1년간 기부처별 기부경험 유무</li> </ul>  |

**<표3-3> 기부 관련 기본 사항 : 기부 여부, 금액, 횟수 등**



대부분의 조사들이 기본적으로 질문하는 내용은 연간기부 금액과 횟수에 관한 것이다. 기부금액과 횟수에 관한 질문은 동시에 각 기부처에 대한 기부여부 또는 정기기부여부 등의 내용을 복합적으로 포함하기도 한다. 복지패널, 사회조사, 재정패널, 서울시복지패널 등 주요 조사연구 모두 이에 대해 질문을 하고 있다. 질문의 핵심내용은 동일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질문하는 방식 그리고 이에 대해 응답하는 방식은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예를 들어 아름다운재단의 Giving Korea는 기부에 대한 정의와 함께 지난 1년 동안의 기부 금액과 횟수를 기부분야에 따라서 구별해서 제시하도록 하였다. 또한 경조사, 현금이나 보시 등과 종교 단체에 대한 현금 등은 기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질문을 구성하였다. 기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내용은 복지패널과 사회조사 역시 포함하여 질문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복지패널은 단순히 연간 기부금액의 총액만을 물어보고 있으며, 사회조사, 서울시복지패널, 재정패널은 Giving Korea와 비슷하게 후원경로, 기부분야에 따른 금액과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물어보고 있다. 이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사회조사는 후원경로에 따른 기부금액과 횟수를 물어보고 있고, 서울시복지패널은 후원경로에 따른 기부여부와 정기적 기부여부, 지난 1년간 기부금액을, 재정패널은 기부분야에 따른 연간 기부금액을 물어보고 있다.

각각의 질문내용 중 조사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응답자가 누구인가의 문제이다. 이는 설문조사의 경우 조사단위의 문제와 연결되는 것으로 응답자 개인의 기부여부 및 액수를 측정하는가 아니면 응답자를 포함한 가구 전체의 기부여부 및 액수를 측정하는가로 구분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조사단위가 누구냐에 따라 기부 참여 비율, 기부 횟수 및 기부액수의 측정과 그 결과의 해석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

두 번째로는 기부참여 및 액수 등을 각각의 기부처를 제시하고 응답하느냐 또는 연간총액을 응답자가 추산하여 응답하느냐 역시 기부액수에 대한 결과를 다르게 끌어내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와 더불어 기부처를 어떻게 제시할 것인가도 유의해야 될 필요가 있다. 즉 가능한 모든 기부처별로 기부액수를 모두 보고하도록 하고, 이의 총합 등을 결과로 제시하는 경우가 연간 총액으로 기부액수나 기부횟수를 측정하게 되는 경우보다 기부액수나 횟수가 높게 측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② 조사결과

| 조사명           | 조사연도       | 조사결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Giving Korea  | 201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부 경험있음 : 전체 응답자의 57.5%</li> <li>기부 경험없음 : 전체 응답자의 42.5%</li> <li>연간 평균 순수 기부액 : 21만 9천원 (포괄적 기부액:114만 8천원)</li> <li>기부처별 연간 기부금액</li> </ul>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table border="1"> <thead> <tr> <th>기부처</th> <th>기부경험있음(%)</th> <th>기부금액</th> </tr> </thead> <tbody> <tr> <td>종교단체</td> <td>21.6</td> <td>31만 4천원</td> </tr> <tr> <td>자선단체</td> <td>72.2</td> <td>8만 7천 5백원</td> </tr> <tr> <td>해외 구호</td> <td>16.4</td> <td>10만 5천원 8백원</td> </tr> <tr> <td>교육기관</td> <td>4.1</td> <td>20만 2천원 9백원</td> </tr> <tr> <td>의료기관</td> <td>1.3</td> <td>9만 5천 8백원</td> </tr> <tr> <td>문화예술단체</td> <td>0.5</td> <td>5만 5천 8백원</td> </tr> <tr> <td>시민단체</td> <td>3.2</td> <td>20만 6천 2백원</td> </tr> <tr> <td>공공기관 및 지역사회</td> <td>7.3</td> <td>8만 1천 9백원</td> </tr> <tr> <td>친척, 친구 및 가까운 이웃 등 지인</td> <td>6.1</td> <td>65만 7천원</td> </tr> <tr> <td>부랑인, 노숙인</td> <td>19.6</td> <td>3만 4천 3백원</td> </tr> <tr> <td>선거, 정치단체, 정치인</td> <td>4.3</td> <td>7만 6천 1백원</td> </tr> <tr> <td>기타</td> <td>0.8</td> <td>19만 8천 4백원</td> </tr> </tbody> </table> | 기부처       | 기부경험있음(%)   | 기부금액   | 종교단체   | 21.6   | 31만 4천원 | 자선단체 | 72.2 | 8만 7천 5백원 | 해외 구호   | 16.4 | 10만 5천원 8백원 | 교육기관 | 4.1 | 20만 2천원 9백원 | 의료기관 | 1.3 | 9만 5천 8백원 | 문화예술단체 | 0.5 | 5만 5천 8백원 | 시민단체 | 3.2 | 20만 6천 2백원 | 공공기관 및 지역사회 | 7.3 | 8만 1천 9백원 | 친척, 친구 및 가까운 이웃 등 지인 | 6.1 | 65만 7천원 | 부랑인, 노숙인 | 19.6 | 3만 4천 3백원 | 선거, 정치단체, 정치인 | 4.3 | 7만 6천 1백원 | 기타 | 0.8 | 19만 8천 4백원 |
|               |            | 기부처   | 기부경험있음(%) | 기부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종교단체  | 21.6      | 31만 4천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선단체  | 72.2      | 8만 7천 5백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해외 구호   | 16.4      | 10만 5천원 8백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교육기관  | 4.1       | 20만 2천원 9백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의료기관  | 1.3       | 9만 5천 8백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문화예술단체  | 0.5       | 5만 5천 8백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시민단체  | 3.2       | 20만 6천 2백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공공기관 및 지역사회   | 7.3       | 8만 1천 9백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친척, 친구 및 가까운 이웃 등 지인  | 6.1       | 65만 7천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랑인, 노숙인  | 19.6      | 3만 4천 3백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선거, 정치단체, 정치인 | 4.3        | 7만 6천 1백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타            | 0.8        | 19만 8천 4백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복지 패널         | 2006 ~201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간 기부액 전체평균</li> <li>2006년 : 39만 9천원</li> <li>2007년 : 30만 5천원</li> <li>2008년 : 25만 8천 5백 5십원</li> <li>2009년 : 27만 4백원</li> <li>2010년 : 45만 3천 7백 2십원</li> <li>2011년 : 32만원</li> <li>2012년 : 35만원</li> </ul>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회조사          | 201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부 경험자 : 전체 응답자의 36.4%</li> <li>기부형태(복수응답) : 현금 34.8%, 물품 8.5%</li> </ul>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table border="1"> <thead> <tr> <th>후원경로</th> <th>종류</th> <th>경험(%)</th> <th>횟수(연간)</th> <th>금액(연간)</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대상자 직접</td> <td>현금</td> <td>12.1</td> <td>6.5</td> <td>35만 5천원</td> </tr> <tr> <td>물품</td> <td>30.3</td> <td>3.6</td> <td>-</td> </tr> </tbody> </table>   | 후원경로      | 종류          | 경험(%)  | 횟수(연간) | 금액(연간) | 대상자 직접  | 현금   | 12.1 | 6.5       | 35만 5천원 | 물품   | 30.3        | 3.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후원경로  | 종류        | 경험(%)       | 횟수(연간) | 금액(연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대상자 직접        | 현금         | 12.1  | 6.5       | 35만 5천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물품         | 30.3  | 3.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회조사        | 2011          | 언론기관  | 현금                      | 21.8                   | 4.1                             | 3만 3천원  |
|             |               |   | 물품                      | 4.5                    | 3.1                             | -       |
|             |               | 모금단체  | 현금                      | 46.9                   | 4.4                             | 9만 6천원  |
|             |               |   | 물품후원단체                  | 물품                     | 23.9                            | 2.8     |
|             |               | 종교단체  | 현금                      | 21.1                   | 5.7                             | 23만 9천원 |
|             |               |   | 물품                      | 35.6                   | 3.2                             | -       |
|             |               | 직장(기업)  | 현금                      | 13.8                   | 5.7                             | 13만 3천원 |
|             |               |   | 물품                      | 12.8                   | 2.5                             | -       |
|             |               | 기타  | 현금                      | 8.1                    | 3.8                             | 3만 8천원  |
|             |               |   | 물품                      | 4.1                    | 1.8                             | -       |
| 지정<br>패널    | 2008<br>~2011 | <b>연도</b>   | <b>가구별 기부금 지출 여부(%)</b> |                        | <b>기부금 지출시<br/>가구별 연평균 기부금액</b> |         |
|             |               | 2007  | 33.6                    |                        | 122만 6천원                        |         |
|             |               | 2008  | 33.2                    |                        | 127만 8천원                        |         |
|             |               | 2009  | 35.2                    |                        | 153만 8천원                        |         |
|             |               | 2010  | 34.7                    |                        | 151만 9천2백원                      |         |
| 서울시<br>복지패널 | 2008<br>~201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0년 조사 결과</li> <li>* 2008, 2009년은 조사 결과보고서 없음</li> <li>* 기부 경험 있음 : 전체 응답자의 16.8%</li> <li>* 기부 경험자 대상 조사결과</li> </ul> |                         |                        |                                 |         |
|             |               | <b>기부처</b>  | <b>기부경험<br/>있음(%)</b>   | <b>정기적<br/>참여여부(%)</b> | <b>지난 1년간<br/>기부액</b>           |         |
|             |               | 종교단체  | 43.4                    | 41.8                   | 35만 5천원                         |         |
|             |               | 자선단체  | 48.9                    | 32.4                   | 13만 4천원                         |         |
|             |               | 해외 구호   | 13.2                    | 29.9                   | 9만 1천원                          |         |
|             |               | 교육기관  | 5.4                     | 32.7                   | 21만원                            |         |
|             |               | 의료기관  | 0.9                     | -                      | 12만 2천원                         |         |
|             |               | 문화예술단체  | 0.8                     | -                      | 33만 4천원                         |         |
|             |               | 환경 및 동물보호단체   | 2.0                     | -                      | 27만 1천원                         |         |
|             |               | 공공기관 및 지역사회   | 10.4                    | 18.0                   | 16만 6천원                         |         |
|             |               | 친척, 친구 및 가까운<br>이웃 등 지인   | 4.9                     | 23.4                   | 49만원                            |         |
|             |               | 부랑인, 노숙인  | 6.6                     | 7.8                    | 10만 5천원                         |         |
|             |               | 선거, 정치단체, 정치인   | 3.0                     | -                      | 18만 9천원                         |         |
|             |               | 기타  | 5.9                     | -                      | 22만 7천원                         |         |

<표 3-4> 조사결과 : 기부 관련 기본 사항 : 기부 여부, 금액, 횟수 등

기부경험, 금액, 횟수 등 기본적 내용에 대한 가장 최근의 결과를 기반으로 하여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 가. 기부경험

Giving Korea의 경우 2011년 동안 기부를 한 사람은 전체 응답자의 57.5%였다. 이를 다른 조사 결과와 비교해 보면 통계청에서 실시한 사회조사의 결과인 36.4%와 재정패널의 2010년 가구별 기부금 지출 비율인 34.7%보다 다소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우선 조사단위가 개인이나 가구 단위냐에 따라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재정패널과 Giving Korea의 조사결과를 비교하면 가구를 단위로 한 재정패널의 경우 개인을 대상으로 한 경우보다 낮은 비율을 보여주는데 이러한 경우 한 가구를 대표하는 응답자 또는 가구주가 모든 가구원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어려워 각각의 개인이 자신에 대해 응답을 하는 경우보다 낮게 추정될 가능성이 있다.

또 다른 가능성은 현금기부와 현물기부를 통합하여 질문하거나 혹은 이를 구분하여 질문하는 방식 때문에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사회조사는 현금으로 기부하는 경우를 현물기부와 분리하여 질문하고 있지만 재정패널은 현물기부나 현금기부를 구분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현물을 기부하는 경우는 응답자가 이를 기부로 인식하지 못하여 자세한 내용을 응답하지 않음으로써 비교적 낮은 비율을 보여주게 된다. 반면 Giving Korea는 세부적인 기부처별로 현금기부와 현물기부를 구분하여 질문하고 있는데 이러한 질문방식은 응답자로 하여금 보다 자세한 응답을 이끌어낼 수 있다.

조사결과와의 차이를 초래하는 또 다른 요인 중의 하나는 조사대상인 표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이다. 예를 들어 사회조사와 같이 10대를 포함하는 경우와 Giving Korea처럼 19세 이상의 성인만을 포함하는 경우가 있는데, 성인의 경우 10대 보다는 자발적 행위로서 기부를 더 많이 하거나 또는 기부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높아 기부참여율이 다르게 보고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또한 학력분포의 경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학력이 높은 경우 기부참여가 높아진다는 일반적 논의를 고려한다면 중졸이하의 학력이 다소 낮게 나타나는 Giving Korea의 경우 기부참여율이 높게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

#### 나. 기부금액

Giving Korea의 경우 경조사비나 종교단체에 대한 현금을 제외한 연간 순수기부액의 평균은 21만

9천원 정도였으며, 모두 포함한 포괄적 기부액은 114만 8천원으로 보고되었다. 복지패널의 경우 연간기부금액의 평균을 조사하였는데, 2012년 조사결과 약 35만원으로 제시되었다. 재정패널의 경우는 가구별 연평균 기부액이 2010년의 경우 151만 9천원 정도라고 보고하였다. 이외에 Giving Korea나 사회조사는 각각의 기부처에 따른 기부금액을 조사하는데, Giving Korea의 경우 12개 기부처를, 그리고 사회조사의 경우는 5개 정도의 기부처를 제시하고 응답자가 각각의 기부처에 대한 기부금액을 기록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재정패널은 가구별 연평균 기부금액과 함께 개별 가구원들을 대상으로 5개 기부분야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고, 이에 대한 연간 기부액을 기록하도록 하는 설문 문항을 제시하고 있다. 재정패널은 Giving Korea나 사회조사와 다르게 응답자가 모든 기부처에 대한 기부액을 기록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부처 하나를 선택하고 이 분야에 대한 기부금액을 기록하도록 하고 있다.

기부금액과 관련한 조사결과에 대한 해석을 할 때 몇 가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하는 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기부횟수와 마찬가지로 가구단위로 하는 경우와 개인을 단위로 하는 경우 기부금액의 추정이 다르게 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개인을 단위로 상세히 응답하게 되면 연간 총기부금액은 다소 높게 보고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가구당 한사람의 응답자가 모든 가구원의 기부에 대해 응답하게 하는 경우 기부금액은 커질 수 있지만, 한 사람의 회고에 의존하게 되므로 조사 결과의 정확성은 다소 떨어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기부금액과 관련된 또 다른 중요한 이슈는 가능한 모든 기부처를 제시하고 그 대상별로 기부금액을 보고하는 방식과 기부처의 구분 없이 연간 총액을 보고하도록 하는 방식에 따라 총기부금액에 대한 결과가 상이하게 제시될 수 있다는 점이다. 기부처를 상세하게 제시하는 것은 응답자로 하여금 보다 자세하게 기부참여 여부와 기부금액을 보고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재정패널 조사와 같이 하나의 기부처를 제시하고 이를 기록하도록 하는 경우는 모든 기부처에 기부금액을 제시하도록 하는 것보다는 기부금액이 적게 보고될 수 있다.

또한 조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고려할 때 가구소득이 200만원 이하인 응답자의 비율이 다른 조사에 비해 비교적 낮게 보고되었기 때문에 Giving Korea의 기부금액이 보다 높게 나타났다고 볼 수도 있다.

#### 다. 기부처

대부분의 조사에서 기부처에 대한 내용 역시 기부금액, 기부횟수 등의 내용과 함께 조사되고 있었다. Giving Korea는 12개 정도의 기부처를 제시하고 있으며, 사회조사와 재정패널은 5개 정도로

기부처를 요약하여 제시하고 있다.

기부처별 기부금액에 대한 조사결과들을 간단하게 비교해보면, Giving Korea와 사회조사의 2011년 조사결과는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즉 모금기관 등을 통하지 않고 친척, 친구 및 가까운 이웃 등 지인이나 부랑인, 노숙인 등 대상자에게 직접 전달하는 방식의 기부액이 34만원~35만원 수준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외에 종교단체를 통한 기부액 역시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보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서울시복지패널 역시 연간 기부액의 경우 친척, 친구 및 가까운 이웃 등 지인을 위한 기부가 49만원으로 가장 많았는데, 이는 위에 제시된 Giving Korea나 사회조사에서 보고된 수준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차이는 다른 조사가 전국을 대상으로 한 것에 비해 서울시복지패널은 지역적으로 서울에 한정된 표본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 기인하는 것일 수 있다.

## 2) 기부의 정기성

### ① 설문내용

| 조사명          | 조사연도      | 설문문항 주요 내용   |
|--------------|-----------|--|
| Giving Korea | 201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부금을 낼 경우 정기적 기부 여부</li> <li>• 정기적 기부를 할 경우 기부 간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기적 기부 기준 : 1년 기준 연 4차례 이상 기부</li> </ul> </li> </ul>   |
| 복지패널         | 2006~201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체 응답자들의 정기적 기부나 자원봉사 여부 : 그렇다, 아니다 중 택일</li> <li>* '정기적' 기준은 제시하지 않음</li> </ul>  |
| 사회조사         | 201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부금을 낼 경우 지난 1년간(7월 15일~7월 14일) 주기적인 후원금 기부 경험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있다, 없다 두가지 보기 중 택일</li> <li>* 있다에 응답할 경우 월, 분기, 반기, 기타 중 택일</li> </ul> </li> <li>• 기부물품을 낼 경우 지난 1년간(7월 15일~7월 14일) 주기적인 후원품 기부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있다, 없다 두가지 보기 중 택일</li> <li>* 있다에 응답할 경우 월, 분기, 반기, 기타 중 택일</li> </ul> </li> </ul> |
|              | 2013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부금(품)을 낼 경우 지난 1년간(5월 11일~5월 10일) 주기적 후원금이나 후원품 기부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후원금과 후원품으로 구별하여 있다, 없다 두가지 보기 중 택일</li> <li>* 있다에 응답할 경우 월, 분기, 반기, 기타로 간격 제시</li> </ul> </li> </ul>  |

|          |             |  |
|----------|-------------|--|
| 서울시 복지패널 | 2008 ~ 201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부금을 낸 경우 정기적인지 여부</li> <li>• 지난 1년간 기부처별 정기적 기부 참여여부, 정기적 기부 참여시 기부처별 기부액 (기부물품 환산액 포함)</li> <li>* 기부처 : 종교단체, 자선단체, 해외구호, 교육기관, 의료기관, 문화예술단체, 환경 및 동물보호(단체), 공공기관 및 지역사회, 친척이나 친구 및 가까운 지인, 부랑인이나 노숙인, 정치 관련, 기타</li> </ul> |
|----------|-------------|--|

<표 3-5> 기부의 정기성

기부의 정기성은 재정패널을 제외한 Giving Korea, 복지패널, 사회조사, 서울시복지패널 등 4곳에서 조사하고 있다. 이 중 복지패널은 기부 여부와 기부의 정기성을 한 보기로 묶어서 질문하고 있는 반면, Giving Korea, 사회조사, 서울시복지패널은 기부의 정기성을 별도 문항으로 구별하여 질문하고 있다.

기부의 정기성에 대한 조사의 경우는 기부의 정기성을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 그리고 정기적이라고 할 때 주기를 어떻게 제시할 것이냐가 조사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Giving Korea는 정기적 기부의 구체적인 정의를 제시하는데, 1년에 4차례이상 시설/기관/단체/개인에게 기부를 하는 것이라는 정의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외의 조사들은 이러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다.

② 조사결과

| 조사명          | 조사연도        | 조사결과  |        |        |        |        |      |       |       |      |      |       |       |      |      |       |       |      |
|--------------|-------------|---|--------|--------|--------|--------|------|-------|-------|------|------|-------|-------|------|------|-------|-------|------|
| Giving Korea | 201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부금을 낸 경우) 정기적 기부경험 있다 : 67.3%</li> <li>• 정기적 기부경험 간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매주 : 4.7%</li> <li>매달 : 83.7%</li> <li>매 분기 : 10.5%</li> <li>모름/무응답 : 1.1%</li> </ul> </li> </ul>  |        |        |        |        |      |       |       |      |      |       |       |      |      |       |       |      |
| 복지패널         | 2006 ~ 201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체 응답자 중) 정기적 기부나 자원봉사 여부</li> </ul> <table border="1" data-bbox="518 1537 1256 1696"> <thead> <tr> <th>조사연도</th> <th>그렇다(%)</th> <th>아니다(%)</th> <th>무응답(%)</th> </tr> </thead> <tbody> <tr> <td>2006</td> <td>11.30</td> <td>87.20</td> <td>1.50</td> </tr> <tr> <td>2007</td> <td>10.40</td> <td>88.00</td> <td>1.60</td> </tr> <tr> <td>2008</td> <td>10.51</td> <td>89.43</td> <td>0.06</td> </tr> </tbody> </table> | 조사연도   | 그렇다(%) | 아니다(%) | 무응답(%) | 2006 | 11.30 | 87.20 | 1.50 | 2007 | 10.40 | 88.00 | 1.60 | 2008 | 10.51 | 89.43 | 0.06 |
| 조사연도         | 그렇다(%)      | 아니다(%)  | 무응답(%) |        |        |        |      |       |       |      |      |       |       |      |      |       |       |      |
| 2006         | 11.30       | 87.20   | 1.50   |        |        |        |      |       |       |      |      |       |       |      |      |       |       |      |
| 2007         | 10.40       | 88.00   | 1.60   |        |        |        |      |       |       |      |      |       |       |      |      |       |       |      |
| 2008         | 10.51       | 89.43   | 0.06   |        |        |        |      |       |       |      |      |       |       |      |      |       |       |      |

|             |               |  |         |         |         |
|-------------|---------------|--|---------|---------|---------|
| 복지<br>패널    | 2006<br>~2012 | 2009   | 13.30   | 86.70   | -       |
|             |               | 2010   | 11.77   | 88.22   | 0.01    |
|             |               | 2011   | 10.60   | 89.40   | -       |
|             |               | 2012   | 12.65   | 87.35   | -       |
|             |               |  |         |         |         |
| 사회조사        | 201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부금을 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주기적으로 후원금 기부한다 : 3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월 단위 이하 : 64.1%</li> <li>분기 단위 : 14.7%</li> <li>반기 단위 : 20.7%</li> <li>기타 : 0.5%</li> </ul> </li> <li>② 주기적으로 후원금 기부하지 않는다 : 68.8%</li> </ul> </li> <li>• 후원품을 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주기적으로 후원품 기부한다 : 34.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월 단위 이하 : 15.7%</li> <li>분기 단위 : 27.9%</li> <li>반기 단위 : 54.9%</li> <li>기타 : 1.5%</li> </ul> </li> <li>② 주기적으로 후원품 기부하지 않는다 : 65.4%</li> </ul> </li> </ul> |         |         |         |
|             |               |  |         |         |         |
| 서울시<br>복지패널 | 2008<br>~201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0년 조사 결과</li> <li>* 2008, 2009년은 조사 결과 제시되지 않음</li> </ul>  |         |         |         |
|             |               | 기부활동   | 기부경험(%) | 정기참여(%) | 기부액     |
|             |               | 종교단체   | 43.4    | 41.8    | 35만 5천원 |
|             |               | 자선단체   | 48.9    | 32.4    | 13만 4천원 |
|             |               | 해외 구호  | 13.2    | 29.9    | 9만 1천원  |
|             |               | 교육기관   | 5.4     | 32.7    | 21만원    |
|             |               | 의료기관   | 0.9     | -       | 12만 2천원 |
|             |               | 문화예술단체   | 0.8     | -       | 33만 4천원 |
|             |               | 환경 및 동물보호(단체)  | 2.0     | -       | 27만 1천원 |
|             |               | 공공기관 및 지역사회  | 10.4    | 18.0    | 16만 6천원 |
|             |               | 친척, 친구 및 이웃 등 지인   | 4.9     | 23.4    | 49만원    |
|             |               | 부랑인, 노숙인   | 6.6     | 7.8     | 10만 5천원 |
|             |               | 선거, 정치단체, 정치인  | 3.0     | -       | 18만 9천원 |
|             |               | 기타   | 5.9     | -       | 13만 7천원 |

<표 3-6> 조사결과 : 기부의 정기성



Giving Korea의 경우 정기적으로 기부한다는 응답자는 67.3%로 전체 기부자 중 상당한 비율이 연 4회 정도의 기부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복지패널은 2006년부터 2011년까지 매년 약 10%~12% 내외의 응답자가 정기적으로 기부나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Giving Korea는 기부 자체만을 대상으로 질문을 하고 있지만, 복지패널은 기부나 자원봉사의 정기성을 하나의 질문으로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응답자들이 기부만 하는지, 자원봉사만 하는지, 혹은 기부와 자원봉사를 모두 하는지 파악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보고하는 결과가 전체 응답자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서 기부자중 정기성을 파악하는 Giving Korea나 사회조사의 결과보다는 다소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사회조사는 정기적으로 기부를 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와 정기적으로 기부를 할 경우의 기부 주기를 현금과 물품으로 구별하여 조사하고 있는데, 정기적으로 기부하고 있다는 비율이 현금과 물품 모두 약 30% 내외(현금 31.2%, 물품 34.6%)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만을 대상으로 하는 서울시복지패널은 종교단체를 통한 사회복지기관이나 불우이웃돕기 현금의 경우 정기적 참여비율이 41.8%로 가장 높았으며, 자선단체를 위한 기부는 32.4% 등으로 나타나서 시설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정기적 기부의 비율이 사회조사보다 약간 높았다. 그러나 Giving Korea 보다는 낮은 수준의 참여율을 보여주었다.

전반적으로 정기적 기부의 경우 Giving Korea의 결과가 다른 조사에 비해 상당히 높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차이는 몇 가지 조사설계 상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추론해볼 수 있다. 우선 조사대상의 차이를 고려해볼 수 있다. 예를 들어 Giving Korea는 19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사회조사는 13세 이상의 가구원을 대상으로, 복지패널은 15세 이상 모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10대 청소년들은 성인에 비해 기부를 할 기회나 능력 등에 있어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체 응답자에 청소년을 포함하면 기부나 정기적 기부의 참여 비율은 다소 낮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조사결과를 보고하는 방식 역시 결과의 차이를 초래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사회조사와 같이 전체 응답자 중에서 정기적 기부여부를 보고하는 경우는 Giving Korea처럼 기부자 중에서 정기적 기부여부를 보고하는 것보다는 그 결과가 매우 낮을 수밖에 없다. 또 다른 이유로 제시될 수 있는 것은 현금과 현물기부를 모두 포함하여 조사를 하는 경우와 사회조사의 경우처럼 현물과 현금을 구분하는 경우 정기적 기부의 비율이 상당한 차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기부의 정기성과 관련하여 Giving Korea의 경우 타 조사와 달리 '정기적'인 기부의 범위를 연 4회 이상으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것도 주목할 부분이다. 즉 응답자들에게 '정기성'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제시하여 응답의 정확성을 높였다는

점 역시 조사결과에 대한 논의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 3) 기부대상 인지 경로

#### ① 설문내용

| 조사명          | 조사연도         | 설문문항   |
|--------------|--------------|--|
| Giving Korea | 201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부대상 인지 경로 : 7가지 보기 제시</li> <li>* 대중매체, 인터넷, 가족이나 지인, 시설 등의 홍보나 요청, 직장, 종교단체, 개인적인 모임</li> </ul>        |
| 사회 조사        | 2011<br>2013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부대상 인지 경로 : 7가지 보기 제시</li> <li>* 대중매체, 종교단체, 직장이나 학교, 시설 등의 홍보, 가족이나 친구 및 동료 등의 권유, 인터넷, 기타</li> </ul> |

<표 3-7> 기부대상 인지 경로

기부대상 인지 경로에 대한 설문은 Giving Korea와 2011년, 2013년 사회조사에서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조사가 기존의 조사(2006년, 2009년)에서는 없었던 질문을 추가했는데 Giving Korea와 거의 동일한 방식으로 질문을 구성하였다.

#### ② 조사결과

| 조사명          | 조사연도 | 설문문항  |
|--------------|------|---|
| Giving Korea | 201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중매체 : 27.4%</li> <li>• 인터넷 : 2.2%</li> <li>• 가족이나 지인 : 10.9%</li> <li>• 시설 등의 홍보나 요청 : 24.8%</li> <li>• 직장 : 5.2%</li> <li>• 종교단체 : 16.8%</li> <li>• 개인적인 모임 : 7.7%</li> <li>• 모름/무응답 : 5.0%</li> </ul> |

|       |              |   |
|-------|--------------|---|
| 사회 조사 | 2011<br>2013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중매체 : 29.4%</li> <li>• 종교단체 : 19.8%</li> <li>• 직장이나 학교: 24.5%</li> <li>• 시설 등의 홍보 : 14.6%</li> <li>• 가족이나 친구 및 동료 등의 : 8.6%</li> <li>• 인터넷 : 2.2%</li> <li>• 기타 : 0.8%</li> </ul> |
|-------|--------------|---|

**<표 3-8> 조사결과 : 기부대상 인지 경로**

기부대상 인지 경로에 대한 Giving Korea 결과와 사회조사의 결과를 보면 두 조사 모두 신문, TV, 라디오 등의 대중매체를 통해 기부경로를 인지하는 경우가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그 외에 시설/기관/단체에 의한 직접 홍보나 요청 및 종교단체를 통한 인지가 약간차이가 있지만 모두 다소 높은 비율로 보고되었다.

기부대상 인지 경로에 대한 조사결과와 함께 기부 금액 및 횟수, 향후 기부 의사, 기부 분야 등을 비교하는 것도 국내의 기부 경로나 절차 등을 파악하는데 어느 정도의 함의를 제공한다고 본다. 예를 들어서 본 보고서의 분석을 토대로 기부대상 인지 경로, 기부 금액 및 횟수, 기부 분야 등을 추론한다면 우리나라 기부자의 절반 이상은 대중매체나 직장, 학교를 통해서 기부대상을 인지하고 있으며 그들의 대부분은 모금단체, 종교단체, 언론기관 등의 공식단체나 기관을 통해서 기부를 하고 있고, 기부한 분야는 사회복지 분야가 많다고 볼 수 있다.

#### 4) 기부 이유

##### ① 설문내용

| 조사명          | 조사연도 | 설문문항  |
|--------------|------|---|
| Giving Korea | 201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부에 영향을 미친 내적동기 : 4가지 보기를 제시하고 보기별로 4점 척도 구성</li> <li>* 보기 : 사회적 책임감, 종교적 신념, 동정심, 개인적 행복감</li> <li>* 척도 구성 : 매우 영향, 대체로 영향, 별로 영향받지 않음, 전혀 영향받지 않음</li> </ul> |

|              |              |  |
|--------------|--------------|--|
| Giving Korea | 201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부에 영향을 미친 외적요인 : 6가지 보기를 제시하고 보기별로 4점 척도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기 : 경제적 여유, 세제혜택,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으로부터의 요청, 대중매체로부터의 자극 및 요청, 모범적 기부자에 의한 자극, 나눔을 실천하는 가족의 전통과 문화</li> <li>* 척도 구성 : 매우 영향, 대체로 영향, 별로 영향받지 않음, 전혀 영향받지 않음</li> </ul> </li> <li>• 기부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 : 7가지 보기 중 택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기 : 기부에 대한 무관심, 기부는 나의 책임 아님, 기부처에 대한 신뢰 부족, 나의 경제적 상황에 대한 불안감, 기부 방법 잘모름, 요청 받은 적 없음, 기타</li> </ul> </li> </ul>  |
| 사회 조사        | 2011<br>2013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부하는 가장 큰 이유 : 7가지 보기 중 택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기 : 어려운 사람 돕고 싶음, 기부처·직장·종교단체 등에서의 요청, 타인을 도와야 한다는 신념, 종교적 신념, 소득공제 등 세제혜택, 지역 사회나 국가에 이바지, 기타</li> </ul> </li> <li>• 미기부시 기부하지 않는 이유 : 6가지 보기 중 택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기 : 경제적 여유 없음, 기부에 대한 관심 없음, 기부방법 모름, 기부단체 신뢰도 낮음, 요청받은 적 없음, 기타</li> </ul> </li> </ul>  |
| 서울시 복지 패널    | 201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부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 : 7가지 보기 중 택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기 : 기부에 대한 무관심, 기부는 나의 책임 아님, 기부처에 대한 신뢰 부족, 나의 경제적 상황에 대한 불안감, 기부 방법 잘모름, 요청 받은 적 없음, 기타</li> </ul> </li> <li>• 기부를 결정하는 가장 큰 내적동인 : 6가지 보기 중 택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기 : 사회적 책임감, 종교적 신념, 동정심, 나눔에 의한 행복감, 나눔을 실천하는 가족의 전통과 문화, 기타</li> </ul> </li> <li>• 기부를 결정하는 가장 큰 외적동인 : 6가지 보기 중 택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기 : 경제적 여유, 연말정산 등 세제혜택,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의 자극, 기부기관 등의 요청, 주변에서 많이들 하는 것 같음, 기타</li> </ul> </li> </ul> |

<표 3-9> 기부 이유

기부 이유에 대한 내용은 Giving Korea, 사회조사, 서울시복지패널 등 세 가지 조사연구에서 조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세 가지 조사연구에서의 설문내용은 매우 유사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Giving Korea는 내적동기와 외적동기를 구분하여 보기를 제시하고 매우 영향을 받음에서부

터 전혀 영향을 받지 않음이라는 4점 척도 방식으로 설문 내용을 구성하였다. 서울시복지패널 역시 Giving Korea와 거의 동일한 보기로 내, 외적 요인을 구분하여 질문하였지만, 응답 방식은 여러 보기 중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설문내용이 구성되었다는 점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사회조사 의 경우는 내적, 외적 동기를 구분하지 않고 응답보기에 이 두가지를 혼합하여 설문을 구성하였다. Giving Korea와 사회조사는 기부의 동기와 함께, 기부를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는데, 응답의 보기 역시 동일하게 구성되었다.

② 조사결과

| 조사명          | 조사연도 | 조사결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Giving Korea | 201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부에 영향을 미친 내적동기</li> </ul> <table border="1"> <thead> <tr> <th>내적동기</th> <th>매우영향</th> <th>대체로영향</th> <th>별로</th> <th>전혀</th> </tr> </thead> <tbody> <tr> <td>사회적 책임감</td> <td>11.2%</td> <td>48.2%</td> <td>31.5%</td> <td>8.4%</td> </tr> <tr> <td>종교적 신념</td> <td>12.0%</td> <td>22.9%</td> <td>33.2%</td> <td>31.2%</td> </tr> <tr> <td>동정심</td> <td>18.0%</td> <td>44.2%</td> <td>27.1%</td> <td>10.1%</td> </tr> <tr> <td>개인적 행복감</td> <td>13.3%</td> <td>44.5%</td> <td>32.6%</td> <td>9.0%</td> </tr> </tbody> </table>   | 내적동기  | 매우영향  | 대체로영향 | 별로    | 전혀 | 사회적 책임감 | 11.2% | 48.2% | 31.5% | 8.4%  | 종교적 신념       | 12.0% | 22.9% | 33.2% | 31.2% | 동정심                                    | 18.0% | 44.2% | 27.1% | 10.1% | 개인적 행복감         | 13.3% | 44.5% | 32.6% | 9.0%  |                 |      |       |       |       |                     |      |       |       |       |
|              |      | 내적동기   | 매우영향  | 대체로영향 | 별로    | 전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회적 책임감  | 11.2% | 48.2% | 31.5% | 8.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종교적 신념   | 12.0% | 22.9% | 33.2% | 31.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동정심  | 18.0% | 44.2% | 27.1% | 10.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개인적 행복감  | 13.3% | 44.5% | 32.6% | 9.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부에 영향을 미친 외적요인</li> </ul> <table border="1"> <thead> <tr> <th>외적요인</th> <th>매우영향</th> <th>대체로영향</th> <th>별로</th> <th>전혀</th> </tr> </thead> <tbody> <tr> <td>경제적 여유</td> <td>8.4%</td> <td>26.4%</td> <td>43.7%</td> <td>20.8%</td> </tr> <tr> <td>연말 정산 등 세제혜택</td> <td>2.2%</td> <td>9.6%</td> <td>40.6%</td> <td>47.0%</td> </tr> <tr> <td>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친구, 직장동료)으로부터의 자극, 요청</td> <td>6.2%</td> <td>27.1%</td> <td>39.2%</td> <td>26.8%</td> </tr> <tr> <td>대중매체로부터의 자극, 요청</td> <td>11.4%</td> <td>39.8%</td> <td>31.3%</td> <td>16.7%</td> </tr> <tr> <td>모범적 기부자들에 의한 자극</td> <td>4.6%</td> <td>29.2%</td> <td>44.4%</td> <td>21.1%</td> </tr> <tr> <td>나눔을 실천하는 가족의 전통과 문화</td> <td>6.7%</td> <td>36.4%</td> <td>40.9%</td> <td>15.3%</td> </tr> </tbody> </table> | 외적요인  | 매우영향  | 대체로영향 | 별로    | 전혀 | 경제적 여유  | 8.4%  | 26.4% | 43.7% | 20.8% | 연말 정산 등 세제혜택 | 2.2%  | 9.6%  | 40.6% | 47.0% |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친구, 직장동료)으로부터의 자극, 요청 | 6.2%  | 27.1% | 39.2% | 26.8% | 대중매체로부터의 자극, 요청 | 11.4% | 39.8% | 31.3% | 16.7% | 모범적 기부자들에 의한 자극 | 4.6% | 29.2% | 44.4% | 21.1% | 나눔을 실천하는 가족의 전통과 문화 | 6.7% | 36.4% | 40.9% | 15.3% |
|              |      | 외적요인   | 매우영향  | 대체로영향 | 별로    | 전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경제적 여유   | 8.4%  | 26.4% | 43.7% | 20.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연말 정산 등 세제혜택   | 2.2%  | 9.6%  | 40.6% | 47.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친구, 직장동료)으로부터의 자극, 요청   | 6.2%  | 27.1% | 39.2% | 26.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대중매체로부터의 자극, 요청  | 11.4% | 39.8% | 31.3% | 16.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모범적 기부자들에 의한 자극  | 4.6%  | 29.2% | 44.4% | 21.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나눔을 실천하는 가족의 전통과 문화  | 6.7%  | 36.4% | 40.9% | 15.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Giving Korea | 201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부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li> <li>기부에 대한 무관심 : 30.1%</li> <li>기부가 나의 책임 아님 : 6.8%</li> <li>기부처에 대한 신뢰부족 : 8.8%</li> <li>나의 경제적 상황에 대한 불안감 : 35.7%</li> <li>기부방법 잘 모름 : 8.8%</li> <li>요청받은 적 없음 : 7.2%</li> <li>모름/무응답 : 2.5%</li> </ul>  |
| 사회 조사        | 201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부하는 이유</li> <li>어려운 사람을 돕고 싶음 : 43.3%</li> <li>기부단체, 직장, 종교단체 등으로부터 요청 : 28.3%</li> <li>타인을 도와야 한다는 신념 : 14.9%</li> <li>종교적 신념 : 7.9%</li> <li>소득공제 등의 세제혜택 : 1.3%</li> <li>지역사회나 국가에 이바지 : 3.9%</li> <li>기타 : 0.4%</li> <li>• 기부하지 않는 이유</li> <li>경제적 여유 없음 : 62.6%</li> <li>기부에 대한 관심 없음 : 18.6%</li> <li>기부단체 신뢰도 낮음 : 8.9%</li> <li>요청받은 적 없음 : 5.7%</li> <li>기부방법 모름 : 3.7%</li> <li>기타 : 0.5%</li> </ul> |
| 서울시 복지패널     | 201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부하지 않는 이유</li> <li>기부에 대한 무관심 : 26.1%</li> <li>기부가 나의 책임 아님 : 24.2%</li> <li>기부처에 대한 신뢰 부족 : 6.2%</li> <li>나의 경제적 상황에 대한 불안감 : 32.2%</li> <li>기부 방법 잘모름 : 2.4%</li> <li>직접 요청을 받은 적 없음 : 7.2%</li> <li>기타 : 1.7%</li> <li>• 기부를 결정하는 가장 큰 내, 외적동인: 조사결과 제시되지 않음</li> </ul>   |

**<표 3-10> 조사결과 : 기부 이유**

Giving Korea는 기부동기를 내적동기와 외적요인으로 분류하고 각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쳤는지를 ‘매우 영향을 미쳤다’, ‘대체로 영향을 미쳤다’,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등의 보기로 구별하여 결과를 제시하였다. 내적동기를 볼 경우 ‘매우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항목을 기준으로 하면 시민으로서 사회에 대한 책임감, 개인적인 행복감, 동정심, 종교적 신념 순서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4점 척도 중 ‘매우 영향을 미쳤다’와 ‘대체로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을 통합하여 보면 동정심, 사회적 책임감, 개인적 행복감, 종교적 신념 순서로 그 순위가 약간 상이하다. 외적요인의 경우 대중매체로부터의 자극, 요청, 나눔을 실천하는 가족의 전통과 문화, 경제적 여유,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으로부터의 자극, 요청 등의 순서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긍정적인 응답항목을 통합하는 경우에도 외적 요인에 대한 결과는 유사하다.

한편 사회조사는 형편이 어려운 사람을 돕고 싶어서(43.3%), 기부단체, 직장, 종교단체 등으로부터 요청을 받아서(28.3%), 타인을 돕고 살아야 한다는 개인적 신념 때문에(14.9%), 종교적 신념 때문에(7.9%)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질문 방식이 다소 달라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Giving Korea와 사회조사의 조사결과를 비교해보면 가장 많은 사람들이 대체로 동점심 또는 어려운 사람을 돕고 싶다는 항목에 응답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온정주의적 태도에 기반한 기부 행위라는 한국사회의 특징을 유사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기부를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Giving Korea의 조사결과는 경제적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35.7%), 기부에 대해 관심이 없어서(30.1%) 등의 순서로 보고하고 있다. 사회조사 역시 경제적 여유 없음(62.6%), 기부에 대한 관심 없음(18.6%) 등의 순서로 기부를 하지 않는 이유가 나타났다. 서울시복지패널에서 기부하지 않는 이유를 파악한 결과도 경제적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32.2%), 기부에 대해 관심이 없어서(26.1%) 등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나서 Giving Korea와 사회조사의 응답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부하지 않는 이유를 비교분석할 경우 Giving Korea, 사회조사, 서울시복지패널 모두 비슷한 순서대로 이유가 나타났는데, 경제적 여유나 상황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그 뒤로 기부에 대한 관심이 없거나, 기부단체나 기부요청자에 대한 신뢰가 낮은 등이 상위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특이한 점은 서울시복지패널은 ‘기부가 나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서’(24.2%)라는 응답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Giving Korea의 조사 결과에서는 같은 문항에 대한 응답률이 6.8%로 낮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 5) 향후 기부 의사

### ① 설문내용

| 조사명          | 조사연도              | 설문문항 주요 내용  |
|--------------|-------------------|---|
| Giving Korea | 2011              | • 향후 1년 이내 기부 의사  |
| 사회 조사        | 2011<br>2013      | • 향후 1년 이내 현금 또는 물품 기부 의사 : 있다, 없다 중 택일<br>* 있다에 응답한 경우 정기, 부정기 중 택일  |
| 서울시 복지패널     | 2008<br>~<br>2010 | • 향후 1년 이내 기부 의사 : 12개 기부영역 제시<br>* 기부영역 : 종교단체, 자선단체, 해외구호, 교육기관, 의료기관, 문화예술 단체, 환경 및 동물보호단체, 공공기관 및 지역사회, 지인, 노숙인, 정치인 (단체), 기타 |

<표 3-11> 향후 기부 의사

향후 기부 의사에 대해서는 Giving Korea, 사회조사, 서울시복지패널 등 3곳에서 조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Giving Korea는 기부의향 여부만을 질문하고 있는데 반해 사회조사는 향후 1년 이내 현금 또는 물품 기부 의사가 있는지를 물어보면서 기부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 정기 기부와 비정기 기부를 구분하여 의사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서울시복지패널은 앞의 두가지 조사와는 다소 다르게 약 12개 정도의 구체적인 기부활동을 제시하고 각 활동별로 기부의사가 있는지를 질문하였다.

### ② 조사결과

| 조사명          | 조사연도          | 설문문항 주요 내용   |
|--------------|---------------|--|
| Giving Korea | 2011          | • 향후 1년 이내 기부 의사 있음 : 46.2%<br>• 향후 1년 이내 기부 의사 없음 : 38.1%<br>• 모름/무응답 : 15.7% |
| 사회 조사        | 2011<br>2013  | • 향후 1년 이내 현금이나 물품 기부 의사 있음 : 45.8%<br>• 향후 1년 이내 현금이나 물품 기부 의사 없음 : 54.2%     |
| 서울시 복지패널     | 2008<br>~2010 | * 해당 설문에 대한 조사결과는 제시되지 않음  |

<표 3-12> 조사결과 : 향후 기부 의사



향후 기부 의사에 대한 조사결과를 살펴본 결과 Giving Korea의 경우 있다 46.2%, 사회조사의 경우 향후 1년 이내에 현금 또는 물품을 기부할 의사가 있다 45.8%로 나타나 대체로 비슷한 결과를 나타냈다.

## 6) 기부금 지출 희망분야

### ① 설문내용

| 조사명          | 조사연도         | 설문문항 주요 내용   |
|--------------|--------------|--|
| Giving Korea | 201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부금이나 기부물품 지출 희망분야 : 동일한 질문을 세 번 반복하되, 질문을 반복할 때마다 다른 보기들을 제시하면서 1, 2순위까지 골라서 응답하도록 함</li> <li>* 설문 1(분야별) : 8가지 보기 제시<br/>자선 및 사회복지, 교육 및 연구, 의료, 문화 및 예술, 공익활동, 해외구호, 지역사회발전, 기타</li> <li>* 설문 2(대상자별) : 9가지 보기 제시<br/>아동복지, 청소년복지,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여성복지, 빈곤가구, 북한동포, 다문화 가정 및 외국인 노동자, 기타</li> <li>* 설문 3(지역별) : 4가지 보기 제시<br/>지역사회 발전, 공동체를 위해서, 국내 문제 해결, 국제 문제 해결</li> </ul> |
| 사회 조사        | 2011<br>2013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부금이나 기부물품 지출 희망분야 : 8가지 보기 제시</li> <li>* 보기 : 사회복지, 의료, 해외구호, 지역사회발전, 공익활동, 교육 및 연구, 문화 및 예술, 기타</li> </ul>  |
| 서울시 복지 패널    | 2008<br>2009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부금이나 기부물품 지출 희망분야 : 4가지 보기 중 택일</li> <li>* 보기 : 지역사회 문제, 공동체 문제, 국내 문제, 국제 문제</li> </ul>   |

<표 3-13> 기부금 지출 희망분야

기부금 지출 희망분야를 살펴본 결과 Giving Korea, 사회조사, 서울시복지패널 등 3곳에서 기부금 지출 희망분야를 조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Giving Korea는 사회조사, 서울시복지패널과는 다르게 기부금 지출 희망분야에 대한 질문을 분야별, 대상자별, 지역별로 구별하고 각각의 보기를 다시 세분화하여 제시함으로써 보다 자세한 결과를 도출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사회조사는 사회복지, 의료, 해외 구호활동 등으로 기부 분야 중

심으로 분류하여 제시하였고, 서울시복지패널은 지역사회, 공동체, 국내, 국제사회 등 지역적 범위 중심으로 기부 분야를 제시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Giving Korea의 경우 사회조사, 서울시복지패널의 조사내용을 포괄하면서 더 구체적인 조사까지 시도하였다고 볼 수 있다.

② 조사결과

| 조사명          | 조사연도 | 조사결과   |
|--------------|------|--|
| Giving Korea | 201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야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선 및 사회복지분야 지원 : 1순위 55.8%, 2순위 20.4%</li> <li>교육 및 연구 : 1순위 7.8%, 2순위 13.4%</li> <li>의료 : 1순위 12.0%, 2순위 16.7%</li> <li>문화 및 예술 : 1순위 1.8%, 2순위 3.1%</li> <li>공익활동 : 1순위 3.8%, 2순위 8.3%</li> <li>해외구호 : 1순위 6.4%, 2순위 12.9%</li> <li>지역사회발전 : 1순위 11.4%, 2순위 23.3%</li> <li>기타 : 1순위 0.4%, 2순위 : 0.2%</li> <li>모름/무응답 : 1순위 0.7%, 2순위 : 1.6%</li> </ul> </li> <li>• 대상자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아동복지 : 1순위 34.9%, 2순위 18.6%</li> <li>청소년복지 : 1순위 8.8%, 2순위 16.1%</li> <li>장애인복지 : 1순위 16.4%, 2순위 18.0%</li> <li>노인복지 지원 : 1순위 23.5%, 2순위 19.4%</li> <li>여성복지 지원 : 1순위 2.1%, 2순위 4.5%</li> <li>빈곤가구 지원 : 1순위 12.5%, 2순위 18.2%</li> <li>북한동포 지원 : 1순위 0.3%, 2순위 1.6%</li> <li>다문화 가정 및 국내 외국인 노동자 : 1순위 0.7%, 2순위 2.7%</li> <li>기타 : 1순위 0.3%, 2순위 0.1%</li> <li>모름/무응답 : 1순위 0.4%, 2순위 0.8%</li> </ul> </li> <li>• 지역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내가 현재 살고 있는 지역사회의 발전 : 47.2%</li> <li>나와 관계가 있는 공동체를 위해서 : 6.7%</li> <li>국내의 일반적 사회 문제 해결 : 34.4%</li> <li>국제적 일반적 사회 문제 해결 : 8.1%</li> <li>모름/무응답 : 3.6%</li> </ul> </li> </ul> |

|          |              |   |
|----------|--------------|---|
| 사회조사     | 201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부금이나 기부물품 지출 희망분야</li> <li>사회복지 : 82.2%</li> <li>의료 : 32.1%</li> <li>해외 구호활동 : 24.5%</li> <li>지역사회발전 : 20.4%</li> <li>공익활동 : 11.0%</li> <li>교육 및 연구활동 : 12.8%</li> <li>문화 및 예술 : 3.6%</li> <li>기타 : 0.3%</li> </ul> |
| 서울시 복지패널 | 2008<br>2009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조사결과보고서 없음</li> </ul>  |

<표 3-14> 조사결과 : 기부금 지출 희망분야

Giving Korea 조사결과 기부금 지출 희망분야로는 자선 및 사회복지분야가 제일 높게 나타났고(1순위, 55.8%), 대상자는 아동복지(일반, 결식, 시설아동, 소년소녀가장 등)가 34.9%(1순위)로 제일 높았다. 그리고 지역 범위는 내가 현재 살고 있는 지역사회(47.2%)가 제일 높게 나타났다. 사회조사의 조사 결과는 사회복지분야가 82.2%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다음으로 의료 분야(32.1%), 해외 구호활동 분야(24.5%), 지역사회발전 분야(지역도서관 건립 등) 20.4%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 7) 유산기부에 대한 인식

### ① 설문내용

| 조사명          | 조사연도         | 설문문항 주요 내용  |
|--------------|--------------|---|
| Giving Korea | 201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산기부 여부</li> <li>유산기부시 전체 유산의 몇 % 기부 가능한가?</li> <li>유산기부시 형태</li> <li>유산기부시 장애요인</li> <li>기부연금 참여 의향</li> <li>기부자 조연 기금 참여 의향</li> </ul> |
| 사회조사         | 2011<br>2013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산기부 여부</li> </ul>   |

<표 3-15> 유산기부에 대한 인식

유산기부에 대한 인식은 Giving Korea와 사회조사에서 질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Giving Korea는 유산기부에 대한 구체적 정의를 제시하면서 다양한 질문을 제시했다. 이에 반해 사회조사는 2011년과 2013년에 유산기부 의사를 간단하게 물어보는 정도로 그치고 있다.

② 조사결과

| 조사명          | 조사연도 | 조사결과  |
|--------------|------|---|
| Giving Korea | 201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산기부 의사<br/>있음 : 12.5%<br/>없음 : 71.6%<br/>모름/무응답 : 15.9%</li> <li>• 유산 기부시 전체 유산의 평균 35.8%까지 기부 가능</li> <li>• 유산 기부 형태<br/>현금 : 61.9%<br/>물품 : 18.2%<br/>부동산 : 25.8%<br/>금융자산(주식 및 보험) : 9.7%<br/>모름/무응답 : 6.5%</li> <li>• 유산기부시 장애 요인<br/>가족 반대 : 42.2%<br/>정보 부족 : 8.8%<br/>기부 대상 선정 어려움 : 6.0%<br/>관리 기관에 대한 신뢰부족 : 25.7%<br/>정부 제도적 혜택의 제한성 : 2.5%<br/>모름/무응답 : 14.9%</li> <li>• 기부연금 참여 의사<br/>있음 : 15.3%<br/>없음 : 69.6%<br/>모름/무응답 : 15.1%</li> <li>• 기부자 조인 기금 참여 의사<br/>있음 : 9.1%<br/>없음 : 76.2%<br/>모름/무응답 : 14.7%</li> </ul> |
| 사회 조사        | 201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산기부 의사<br/>있음 : 37.3%<br/>없음 : 62.7%</li> </ul>   |

<표 3-16> 조사결과 : 유산기부에 대한 인식

Giving Korea의 조사 결과 유산을 기부할 의사가 있는 사람은 전체 응답자의 12.5%로 나타났다. 반면 사회조사에서는 37.3%가 기부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Giving Korea에서는 유산기부에 대한 구체적 정의를 제시해서 응답자가 한 번 더 생각하게 유도했지만 사회조사는 간단하게 질문함으로써 응답자가 쉽게 대답하도록 유도한 것이 응답률의 차이를 가져온 것으로 판단된다. Giving Korea는 또한 유산기부와 관련하여 몇 가지를 추가로 조사했다. 먼저 유산기부 의향자들이 전체 유산에서 어느 정도 기부할 수 있는가를 파악했는데, 평균 35.8%정도라고 응답하였다. 유산기부 형태는 현금(61.9%)이 제일 많았고, 유산기부의 장애 요인은 가족의 동의나 협력이 어렵거나(42.2%), 유산기부시 관리 기관에 대한 신뢰부족(25.7%)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부연금과 기부자 조연 기금 참여 여부도 조사했는데 참여의사는 각각 15.3%, 9.1%로 나타났다.

## 8) 기부문화 확산 방안

### ① 설문내용

| 조사명          | 조사연도         | 설문문항 주요 내용  |
|--------------|--------------|---|
| Giving Korea | 201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부 및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것 : 1,2순위 복수응답</li> <li>* 보기 : 제도적 지원강화, 대중캠페인 활성화, 모범적 기부나 자원봉사 증대, 비영리조직 투명성/신뢰도 상승, 기부와 자원봉사 방법 다양화, 기부와 자원봉사 방법 편리성 증대, 비영리 조직의 노력 증대, 소속 공동체의 마인드 제고, 관련 교육 제도화</li> </ul> |
| 사회 조사        | 2011<br>2013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부문화 확산을 위해서 필요한 것 : 보기 중 택일</li> <li>* 보기 : 모범적 기부 증대, 교육이나 캠페인 등을 통한 인식 개선, 기부단체 투명성 강화, 소득공제 확대 등 정부지원 강화, 기부방법 편리성 증대, 다양한 기부방법 홍보, 기타</li> </ul>  |

<표 3-17> 기부문화 확산 방안

기부문화 확산과 관련한 질문은 Giving Korea와 사회조사가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부문화 확산과 관련하여 Giving Korea와 사회조사에서 제시한 보기는 비슷하였으나 Giving Korea는 9개 정도의 보기 중 1, 2순위까지 응답하도록 유도한 반면, 사회조사는 7개 정도의 보기에서 한가지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② 조사결과

| 조사명          | 조사연도 | 조사결과  |
|--------------|------|---|
| Giving Korea | 201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도적 지원강화(세금공제 혜택 확대 등)<br/>: 1순위 22.7%, 2순위 13.4%</li> <li>• 대중캠페인 활성화<br/>: 1순위 20.7%, 2순위 17.9%</li> <li>• 모범적 기부나 자원봉사 활동 증대(부유층 또는 사회지도층의 모범적 기부나 자원봉사 활동 증대)<br/>: 1순위 16.6%, 2순위 14.1%</li> <li>• 비영리조직 투명성/신뢰도 상승<br/>: 1순위 18.3%, 2순위 17.6%</li> <li>• 기부 및 자원봉사 방법 다양화<br/>: 1순위 7.7%, 2순위 10.6%</li> <li>• 기부 및 자원봉사 방법의 편리성 증대(기부, 자원봉사의 기회 및 종류 다양화)<br/>: 1순위 3.3%, 2순위 8.0%</li> <li>• 비영리조직의 기부 및 자원봉사 요청 노력 증대<br/>: 1순위 2.2%, 2순위 4.3%</li> <li>• 소속 공동체(직장, 종교단체, 모임 등)의 나눔 및 자원봉사 마인드 제고<br/>: 1순위 3.2%, 2순위 4.7%</li> <li>• 아동청소년에 대한 나눔 및 자원봉사 관련 교육 제도화<br/>: 1순위 5.0%, 2순위 8.9%</li> <li>• 모름/무응답<br/>: 1순위 0.2%, 2순위 0.6%</li> </ul> |
| 사회 조사        | 201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지도층과 부유층의 모범적 기부 증대 : 54.8%</li> <li>• 나눔교육, 대중 캠페인 등을 통한 인식 개선 : 16.1%</li> <li>• 기부단체 자금운영 투명성 강화 : 20.6%</li> <li>• 소득공제 확대 등 정부지원 강화 : 4.9%</li> <li>• 기부방법 편리성 증대 : 2.0%</li> <li>• 경조금기부, 유산기부 등 다양한 기부방법 홍보 : 1.1%</li> <li>• 기타 : 0.6%</li> </ul>  |

<표 3-18> 조사결과 : 기부문화 확산 방안

Giving Korea 조사결과 기부문화 확산 방안은 기부 및 자원봉사 관련 제도적 지원강화(1순위, 22.7%), 대중캠페인의 활성화(1순위, 20.7%), 비영리조직 투명성/신뢰도 상승(1순위, 18.3%)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반면 사회조사 결과는 사회지도층과 부유층의 모범적 기부 증대 54.8%, 기

부단체의 자금운영 투명성 강화 20.6%, 나눔교육, 대중 캠페인 등을 통한 나눔에 대한 인식 개선 16.1%, 소득공제 확대 등 정부지원 강화 4.9%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 (2) Giving Korea 단독 조사 문항 및 결과

Giving Korea 단독으로 조사한 설문 문항은 모두 11가지 유형으로 구별할 수 있었다. 다음의 내용은 여타의 기부 관련 조사에서는 정보를 전혀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Giving Korea를 통해 지속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의미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다만 일부의 설문은 정기적으로 조사, 수집되는 것이 아니라 각 조사시점에서 사회적으로 관심이 되는 문항으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1. 기부 방법
2. 기부 금액 증대 여부
3. 기부 대상 확대 여부
4. 경조사 및 종교단체 기부 여부
5. 기부 중단, 변경 관련
6. 중단한 기부처에 대한 인식
7. 현재 기부대상처에 대한 인식
8. 기부시 고려사항
9. 나눔교육에 대한 인식
10. 기부와 인터넷 활용
11. 시설/기관/단체에 대한 신뢰도

위 11가지 유형에 대한 설문 문항의 내용은 <표 Ⅲ-17>과 같다. 복지패널, 사회조사, 재정패널, 서울시복지패널 등은 기부를 다른 조사영역과 같이 조사하기 때문에 기부와 관련된 보다 세세한 정보를 파악하고 분석하는 것에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에 반해 Giving Korea가 단독으로 진행한 설문들은 기부와 관련하여 심층적 정보를 제공하고, 또한 체계적인 논의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조사내용             | 설문문항 주요 내용  |
|------------------|---|
| 기부 방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장 많은 기부를 하고 있는 기부처에 대한 주요 기부 방법</li> <li>* 보기 : 직접 전달, ARS, 온라인, 지로납부, CMS, 급여공제, 기타</li> </ul>   |
| 기부 금액 증액 여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올해 혹은 내년 중 기부금액 증액 여부</li> </ul>   |
| 기부 대상 확대 여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재 기부처 외 다른 곳에 기부 계획 여부</li> </ul>   |
| 경조사 및 종교단체 기부 여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난 1년간(2011년 1월~12월) 경조사 및 종교단체 기부 여부 및 기부시 금액</li> <li>* 기부시 금액 : 지난 1년간 경조사 및 종교단체 기부 지출금액의 총합</li> </ul>  |
| 기부 중단, 변경 관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난 2년간(2010년 1월~2011년 12월) 기부 중단 또는 변경 여부</li> </ul>   |
| 기부 관련 느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난 2년간(2010년 1월~2011년 12월) 기부한 적 있는 시설/단체/기관에 대한 느낌</li> <li>* 13가지 보기 제시<sup>28)</sup></li> <li>* 보기별로 5점 척도로 응답(매우 그러함, 대체로 그러함, 보통, 별로 그렇지 않음, 전혀 그렇지 않음)</li> </ul>  |
| 현재 기부대상자(처) 관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재 시설/단체/기관을 대상으로 정기적(1년 기준 연 4차례 이상의 기부를 한 경우)으로 기부하는지 여부</li> <li>정기적(1년 기준 연 4차례 이상의 기부를 한 경우)으로 기부시 가장 많은 금액을 기부하는 시설/단체/기관을 기준으로 시설/단체/기관에 대해서 느낀 점 응답</li> <li>* 13가지 보기 제시 : 보기 내용은 위와 동일</li> <li>* 보기별로 5점 척도로 응답(매우 그러함, 대체로 그러함, 보통, 별로 그렇지 않음, 전혀 그렇지 않음)</li> </ul>   |
| 기부시 고려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부시 고려 사항</li> <li>* 설문문항을 2가지로 구별하고 각 설문별로 각각 4개, 5개의 보기 제시</li> <li>* 보기별로 4점 척도로 응답(매우 고려, 대체로 고려, 별로 고려하지 않음, 전혀 고려하지 않음)</li> <li>* 설문 1 보기 : 누구에게 기부할 것인지, 기부처에 대한 신뢰도, 기부를 요청받은 곳의 사회적 인지도, 기부가 사회 발전에 미치는 긍정적 변화 정도</li> <li>* 설문 2 보기 : 기부 방법의 간편성, 경제적 상황에 맞는 기부금액 선택 가능성, 기부처의 전문성, 기부금 사용의 투명성, 기부자에 대한 혜택이나 대우</li> </ul> |



|                         |   |
|-------------------------|---|
| <p>나눔교육에 대한 인식</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창시절 나눔 관련 교육 경험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가지 보기 제시, 보기별로 그렇다, 아니다 중 택일</li> <li>* 보기 : 학교나 단체 등에서 나눔 관련 교육 경험 여부, 부모로부터 관련 교육 경험 여부, 부모나 이웃 등의 나눔 활동을 본 적이 있는지 여부, 응답자가 기부나 자원봉사 경험 있는지 여부, 학교를 통한 의무적 봉사나 기부활동 여부</li> </ul> </li> </ul>                |
| <p>기부와 인터넷 활용</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난 1년간(2011년 1월~12월) 기부활동 참여를 위한 인터넷 활용 여부</li> <li>• 기부 관련한 인터넷 활용 정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가지 보기에 대해서 각각 4점 척도(매우 많이, 어느 정도, 별로 안함, 전혀 안함)로 응답</li> <li>* 4가지 보기 : 기부 대상 관련 탐색, 기부처 선택 관련 정보 습득, 기부금액 선택 및 결제, 기부 후 피드백</li> </ul> </li> </ul>         |
| <p>시설/기관/단체에 대한 신뢰도</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기관/단체에 대한 신뢰도 정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6가지 보기에 대해서 각각 4점 척도(매우 신뢰, 어느 정도 신뢰, 별로 신뢰안함, 전혀 신뢰안함)로 응답</li> <li>* 16가지 보기 : 사회복지 시설, 시민단체, 문화예술 단체, 자선단체, 교육기관, 의료기관, 종교기관, 노동조합, 정당, 이익이나 경제단체, 대기업, 중소기업, 중앙정부, 지방정부, 사법기관, 언론기관</li> </ul> </li> </ul> |

**<표 3-19> Giving Korea 단독 조사내용 및 설문문항 주요 내용**

28) 13가지 보기 : 기부가 경제적으로 힘들었음, 적절한 기부액을 요청받았음, 나의 기부에 감사해 함. 연락받는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았음, 기부금 사용방법을 전달받았음, 내가 기부한다는 것을 잘 알도록 해주었음, 나의 기부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음, 기부하는 동안 행복감을 느끼게 했음, 올바르게 기부금을 사용한다고 믿음만 함. 기부는 세제혜택 등 나에게도 도움이 됨. 나의 기부는 다른 사람이나 사회에 도움이 됨. 기부처는 사회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활동을 잘 하였음.

## 2. 자원봉사 관련 설문 문항 분류 및 조사 결과 비교

### (1) Giving Korea, 타 조사연구 중복 문항 및 결과 비교

아름다운재단과 타 조사기관의 설문 중 중복되는 것을 살펴본 결과 모두 4개의 유형으로 구별할 수 있었다. 4개 유형은 다음과 구별하여 제시하였다.

1. 자원봉사 관련 기본사항 : 자원봉사 여부, 활동시간, 횟수
2. 자원봉사 활동의 정기성
3. 자원봉사 인지경로
4. 자원봉사 참여 등의 이유

#### 1) 자원봉사 관련 기본사항 : 자원봉사 여부, 활동시간, 횟수

##### ① 설문내용

| 조사명          | 조사연도        | 설문문항 주요 내용   |
|--------------|-------------|--|
| Giving Korea | 201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체 응답자들의 작년 한 해(2011년 1월~12월)동안 시설/기관/단체/개인 대상 자원봉사활동 여부와 활동시 자원봉사 시간 : 12가지 보기별로 조사</li> <li>* 보기 : 종교단체를 통한 자원봉사, 자선단체를 위한 자원봉사, 해외구호, 교육기관, 의료기관, 문화예술단체, 시민단체, 공공기관 및 지역사회, 친척이나 친구 및 가까운 이웃, 노숙인, 정치인(단체), 기타</li> </ul> |
| 복지패널         | 2006 ~ 201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체 응답자들의 정기적인 기부나 자원봉사 여부</li> <li>* '정기적' 기준은 제시하지 않음</li> <li>• 자원봉사활동을 할 경우 연간 평균 자원봉사 횟수</li> </ul>   |
| 사회조사         | 2011 2013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체 응답자들의 지난 1년간(2011년 7월 15일~2013년 7월 14일) 자원봉사 활동 여부와 활동시 연간 참여횟수 및 1회 평균 시간 : 6가지 보기별로 조사</li> <li>* 보기 : 아동·청소년·노인·장애인·재소자 관련, 환경보전·범죄예방 관련, 자녀교육 관련, 국가 및 지역행사 관련, 재해지역 구호나 해외원조, 기타 일반인 대상 봉사</li> </ul>                 |

|         |                      |   |
|---------|----------------------|---|
| 여성가족패널  | 2007<br>2008         | • 전체 응답자들의 자원봉사활동이나 사회참여활동 여부   |
| 서울시복지패널 | 2008<br>2009<br>2010 | • 전체 응답자들의 지난 1년간(2000년 1월 1일~2000년 12월 31일) 자원봉사활동 여부, 활동시 횟수와 시간 : 13가지 보기별로 조사<br>* 보기 : 종교단체를 통한 자원봉사, 종교단체를 위한 자원봉사, 자선단체를 위한 자원봉사, 해외구호, 교육기관, 의료기관, 문화예술단체, 환경 및 동물보호(단체), 공공기관 및 지역사회, 친척이나 친구 및 가까운 이웃, 노숙인, 정치인(단체), 기타 |

<표 3-20> 자원봉사 관련 기본사항 : 자원봉사 여부, 활동시간, 횟수

자원봉사 여부에 대해서는 Giving Korea를 비롯하여 복지패널, 여성가족패널, 사회조사, 서울시 복지패널 등 5곳에서 조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조사들이 자원봉사의 여부와 함께 각 활동처별 자원봉사 시간이나 횟수 등을 묻는 문항을 함께 제시하고 있다.

Giving Korea와 사회조사는 자원봉사활동 분야를 제시하였는데, Giving Korea는 각 분야별로 자원봉사여부와 시간을 묻는 방식으로, 그리고 사회조사는 각 활동분야별로 연간 횟수와 1회 평균 시간을 묻는 방식으로 문항을 구성하였다.

복지패널은 정기적 기부나 자원봉사 여부를 물어보면서, 자원봉사활동을 할 경우 연간 평균 자원봉사 횟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파악하고 있다. 서울시복지패널 역시 자원봉사 여부와 함께 자원봉사 활동분야, 참여횟수, 1회 평균시간 등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다.

② 조사결과

| 조사명          | 조사연도 | 조사결과  |                |                |         |      |      |        |      |      |        |
|--------------|------|---|----------------|----------------|---------|------|------|--------|------|------|--------|
| Giving Korea | 201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원봉사 경험 있음 : 26.5%</li> <li>• 자원봉사 경험 없음 : 73.5%</li> <li>연간 평균 순수 자원봉사시간 : 61.4시간(포괄적 자원봉사 74.1시간)</li> <li>• 활동처별 자원봉사 여부 및 시간</li> </ul>  |                |                |         |      |      |        |      |      |        |
|              |      | <table border="1"> <thead> <tr> <th>자원봉사 활동처</th> <th>자원봉사 여부 (중복응답)</th> <th>자원봉사 시간</th> </tr> </thead> <tbody> <tr> <td>종교단체</td> <td>30.3</td> <td>37.4시간</td> </tr> <tr> <td>자선단체</td> <td>34.3</td> <td>28.8시간</td> </tr> </tbody> </table> | 자원봉사 활동처       | 자원봉사 여부 (중복응답) | 자원봉사 시간 | 종교단체 | 30.3 | 37.4시간 | 자선단체 | 34.3 | 28.8시간 |
|              |      | 자원봉사 활동처  | 자원봉사 여부 (중복응답) | 자원봉사 시간        |         |      |      |        |      |      |        |
|              |      | 종교단체  | 30.3           | 37.4시간         |         |      |      |        |      |      |        |
| 자선단체         | 34.3 | 28.8시간  |                |                |         |      |      |        |      |      |        |

|                                     |           |   |             |             |             |             |             |                 |             |
|-------------------------------------|-----------|---|-------------|-------------|-------------|-------------|-------------|-----------------|-------------|
| Giving Korea                        | 2011      | 해외구호  | 1.8         | 42.6시간      |             |             |             |                 |             |
|                                     |           | 교육기관  | 24.1        | 22.2시간      |             |             |             |                 |             |
|                                     |           | 의료기관  | 4.0         | 91.2시간      |             |             |             |                 |             |
|                                     |           | 문화예술단체  | 1.8         | 10.7시간      |             |             |             |                 |             |
|                                     |           | 시민단체  | 7.9         | 52.2시간      |             |             |             |                 |             |
|                                     |           | 공공기관 및 지역사회   | 29.5        | 63.1시간      |             |             |             |                 |             |
|                                     |           | 친척, 친구 및 가까운 이웃   | 20.4        | 28.4시간      |             |             |             |                 |             |
|                                     |           | 부랑인, 노숙인  | 5.1         | 10.6시간      |             |             |             |                 |             |
|                                     |           | 선거, 정치단체, 정치인   | 5.1         | 30.6시간      |             |             |             |                 |             |
| 복지패널                                | 2006~2012 | • 정기적 기부나 자원봉사 여부   |             |             |             |             |             |                 |             |
|                                     |           | <b>복지패널</b>   | <b>2006</b> | <b>2007</b> | <b>2008</b> | <b>2009</b> | <b>2010</b> | <b>2011</b>     | <b>2012</b> |
|                                     |           | 그렇다(%)  | 11.3        | 10.4        | 10.51       | 13.30       | 11.77       | 10.6            | 12.65       |
|                                     |           | 아니다(%)  | 87.2        | 88.0        | 89.43       | 86.70       | 88.22       | 89.4            | 87.35       |
| 사회조사                                | 2011      | • 자원봉사 활동을 할 경우 연간 평균 자원봉사 횟수                             |             |             |             |             |             |                 |             |
|                                     |           | <b>횟수/연도</b>  | <b>2006</b> | <b>2007</b> | <b>2008</b> | <b>2009</b> | <b>2010</b> | <b>2011</b>     | <b>2012</b> |
|                                     |           | 횟수  | 13.5        | 13.2        | 14.47       | 11.01       | 10.60       | 11              | 8           |
| 사회조사                                | 2011      | • 자원봉사 경험 있음 : 19.8%                                      |             |             |             |             |             |                 |             |
|                                     |           | <b>활동분야</b>   |             |             |             |             |             | <b>2011년(%)</b> |             |
|                                     |           |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재소자 등과 관련 (복지시설, 병원, 개인가정 봉사, 방과후 교실 등) |             |             |             |             |             | 58.2            |             |
|                                     |           | 환경보전, 범죄예방 관련 (마을청소, 방법활동 등)                              |             |             |             |             |             | 20.6            |             |
|                                     |           | 자녀교육 등과 관련 (일일교사, 교통지도 등)                                 |             |             |             |             |             | 8.8             |             |
|                                     |           | 국가 및 지역행사 등과 관련 (스포츠, 문화행사 등에서의 안내, 통역 등)                 |             |             |             |             |             | 7.7             |             |
|                                     |           | 재해지역 주민돕기 및 시설복구 등과 관련 (해외구호 포함)                          |             |             |             |             |             | 4.4             |             |
| 기타 일반인을 위한 봉사 관련 (관공서 업무지원, 무료상담 등) |           |   |             |             |             | 16.0        |             |                 |             |

| 여성가족<br>패널      | 2007<br>2008 | * 관련 문항에 대한 결과는 제시되지 않음 |               |               |               |
|-----------------|--------------|-------------------------|---------------|---------------|---------------|
| 서울시<br>복지<br>패널 | 2010         | • 자원봉사 경험 있음 : 10.7%    |               |               |               |
|                 |              | 자원봉사 활동처                | 자원봉사<br>여부(%) | 자원봉사<br>횟수(회) | 자원봉사<br>여부(%) |
|                 |              | 종교단체를 통한 자원봉사           | 34.8          | 11.5          | 4.0           |
|                 |              | 종교단체를 위한 자원봉사           | 30.0          | 16.9          | 3.0           |
|                 |              | 자선단체를 위한 자원봉사           | 18.9          | 6.9           | 4.3           |
|                 |              | 해외구호                    | 1.6           | 1.9           | 7.7           |
|                 |              | 교육기관                    | 19.4          | 9.9           | 4.8           |
|                 |              | 의료기관                    | 2.9           | 4.2           | 4.2           |
|                 |              | 문화예술단체                  | 1.1           | 18.3          | 3.9           |
|                 |              | 환경 및 동물보호(단체)           | 2.1           | 9.2           | 2.9           |
|                 |              | 공공기관 및 지역사회             | 25.8          | 10.9          | 4.1           |
|                 |              | 친척이나 친구 및 가까운 이웃        | 2.6           | 10.6          | 3.2           |
|                 |              | 노숙인                     | 1.3           | 10.9          | 4.4           |
|                 |              | 정치인(단체)                 | 1.4           | 6.4           | 4.4           |
| 기타              | 4.8          | 17.5                    | 4.0           |               |               |

<표 3-21> 조사결과 : 자원봉사 관련 기본사항

Giving Korea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26.5%가 자원봉사 경험이 있으며 연간 평균 순수 자원봉사시간은 61.4시간으로 나타났다. 자원봉사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자원봉사 활동처별 자원봉사 경험과 활동 시간을 알아본 결과(중복응답), 자원봉사 경험은 자선단체를 위한 자원봉사(34.3%), 종교단체를 통한 사회복지기관, 불우이웃돕기, 해외구호활동 등의 특별 자원봉사(30.3%), 공공기관 및 지역사회를 위한 자원봉사(29.5%), 교육기관을 위한 자원봉사(24.1%) 등의 순서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원봉사 활동 시간만을 볼 경우 의료기관을 위한 자원봉사 91.2시간, 공공기관 및 지역사회를 위한 자원봉사 63.1시간, 해외구호를 위한 자원봉사 42.6시간 등의 순서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패널은 대체로 10% 내외의 응답자가 정기적으로 기부나 자원봉사활동을 한다고 응답하였다.

이 결과는 Giving Korea의 결과에 비해서 비교적 낮은 비율인데, 복지패널의 조사는 기부와 자원봉사 여부를 하나의 보기에서 묻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어 순수 자원봉사 활동여부만을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조사대상이 15세 이상의 가구원으로 되어 있어 19세 이상의 성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Giving Korea와 비교하면 자원봉사의 경험이 다소 적은 10대 청소년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추정해볼 수 있다.

사회조사에서는 자원봉사 참여율이 2009년을 기준으로 19.8%였다. 사회조사는 각 분야별로 자원봉사 참여율을 제시하고 있다. 순위를 살펴보면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재소자 등과 관련이 58.2%로 가장 높았고, 그 이후로는 환경보전, 범죄예방 관련, 기타 일반인을 위한 봉사 관련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서울시복지패널은 전체 응답자의 10.7%가 지난 1년간 자원봉사활동을 했다고 응답하였다. 자원봉사 활동처별로 자원봉사 여부를 살펴보면 종교단체를 통한 자원봉사가 제일 많았고(34.8%), 종교단체를 위한 자원봉사(30.0%), 공공기관 및 지역사회(25.8%) 등이 뒤를 이었다. 자원봉사 횟수는 문화예술단체(18.3회), 기타(17.5회), 종교단체를 위한 자원봉사(16.9회) 등의 순서였으며, 활동시간은 해외구호(7.7시간)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4시간 내외로 활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원봉사 참여율을 전반적으로 보면 Giving Korea의 결과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외에는 대체로 10% 정도의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의 차이는 기부경험과 마찬가지로 연구대상 또는 질문방식 등의 차이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외에 자원봉사 횟수나 자원봉사의 시간 등은 연간 횟수나 시간으로 묻는 경우와 1회 참여시 평균시간 등으로 질문하는 방식들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각각의 조사결과를 단순하게 비교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 2) 자원봉사 활동의 정기성

### ① 설문내용

| 조사명          | 조사연도 | 설문문항 주요 내용  |
|--------------|------|---|
| Giving Korea | 201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원봉사를 한 시설/기관/단체/개인 중 한 곳이라도 정기적으로 활동했는지 여부와 정기적일 경우 활동 간격</li> <li>* 정기적 : 1년 기준 연 4차례 이상 활동</li> <li>* 활동 간격 : 매주, 매달, 분기, 모름/무응답</li> </ul> |

|          |                      |  |
|----------|----------------------|--|
| 사회 조사    | 2011<br>2013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난 1년간(2011년 7월 15일~2013년 7월 14일) 주기적 자원봉사 활동을 했는지 여부와 주기적일 경우 활동 간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기적' 기준 제시하지 않음</li> <li>* 활동 간격 : 주, 월, 분기, 반기, 기타</li> </ul> </li> </ul>   |
| 서울시 복지패널 | 2008<br>2009<br>201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3가지 보기별로 정기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하는지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기적' 기준 제시하지 않음</li> <li>* 보기 : 종교단체를 통한 자원봉사, 종교단체를 위한 자원봉사, 자선단체를 위한 자원봉사, 해외구호, 교육기관, 의료기관, 문화예술단체, 환경 및 동물보호(단체), 공공기관 및 지역사회, 친척이나 친구 및 가까운 이웃, 노숙인, 정치인(단체), 기타</li> </ul> </li> </ul> |

**<표 3-22> 자원봉사 활동의 정기성**

자원봉사 활동의 정기성은 Giving Korea, 사회조사(2011년, 2013년)와 서울시복지패널에서 조사하고 있다. Giving Korea는 정기성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정기성 여부, 얼마나 정기적인지를 모두 조사하고 있다. 사회조사는 정기성의 기준은 제시하지 않았지만 정기성 여부와 얼마나 정기적인지를 모두 조사하고 있다. 서울시복지패널은 13가지 보기별로 자원봉사 활동의 정기성 여부만을 물어보고 있다.

② 조사결과

| 조사명          | 조사연도         | 조사결과  |
|--------------|--------------|---|
| Giving Korea | 201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기적 자원봉사 경험 있음 : 44.4%</li> <li>• 정기적 자원봉사 경험 없음(기회 있을 때 일회적으로 활동) : 53.4%</li> <li>• 정기적일 경우 활동 간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매주 : 36.1%</li> <li>매달 : 38.5%</li> <li>매 분기 : 25.5%</li> </ul> </li> </ul> |
| 사회 조사        | 2011<br>2013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기적 자원봉사 경험 있음 : 45.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 단위 : 8.5%</li> <li>월 단위 : 24.7%</li> <li>분기 단위 : 31.6%</li> </ul> </li> </ul>  |

|               |              |  |                       |
|---------------|--------------|--|-----------------------|
| 사회 조사         | 2011<br>2013 | 반기 단위 : 31.6%<br>기타 : 3.6%<br>• 정기적 자원봉사 경험 없음 : 54.1% |                       |
| 서울시 복지 패널     | 2010         | * 2010년 조사결과   |                       |
|               |              | <b>자원봉사 활동처</b>  | <b>정기적 자원봉사 여부(%)</b> |
|               |              | 종교단체를 위한 자원봉사  | 54.5                  |
|               |              | 종교단체를 통한 자원봉사  | 45.6                  |
|               |              | 공공기관 및 지역사회  | 35.5                  |
|               |              | 교육기관   | 29.2                  |
| 자선단체를 위한 자원봉사 | 28.0         |  |                       |

**<표 3-23> 조사결과 : 자원봉사 활동의 정기성**

Giving Korea의 조사 결과 응답자 중 44.4%가 정기적으로 자원봉사를 한 적이 있다고 대답했고, 정기적으로 자원봉사를 한 적이 있는 사람들의 38.5%가 매달, 36.1%가 매주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조사에서는 45.9%의 응답자가 정기적 자원봉사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그 중 분기 단위나 반기 단위가 31.6%, 월 단위 24.7%, 주 단위 8.5%, 기타 3.6%인 것으로 나타났다. Giving Korea와 사회조사에서 나타난 자원봉사 참여율 자체는 조사대상의 차이 등으로 인해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 중 정기적인 자원봉사의 비율은 약 45% 내외로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서울시복지패널의 조사결과는 Giving Korea, 사회조사와는 다르게 자원봉사 분야별 응답자들의 정기적 봉사활동 여부를 파악하여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종교단체(교회, 성당, 절 등)을 위한 봉사활동 참여자의 54.5%, 종교단체를 통해 사회복지기관이나 불우이웃을 돕는 봉사활동 참여자의 45.6%, 공공기관 및 지역사회를 위한 자원봉사 참여자의 35.5%, 교육기관(초/중/고/대학교)을 위한 자원봉사 참여자의 29.2%, 자선단체를 위한 자원봉사 참여자의 28.0%가 정기적으로 자원봉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3) 자원봉사 인지경로

#### ① 설문내용

| 조사명          | 조사연도         | 설문문항 주요 내용   |
|--------------|--------------|--|
| Giving Korea | 201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장 많은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시설/기관/단체/개인을 알게 된 방법 : 8가지 보기 중 택일</li> <li>* 보기 : 대중매체, 인터넷, 가족이나 지인, 홍보 및 요청, 직장, 종교단체, 개인 참여 모임, 모름/무응답</li> </ul> |
| 사회 조사        | 2011<br>2013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원봉사활동을 했던 단체를 알게 된 방법 : 7가지 보기 중 택일</li> <li>* 보기 : 대중매체, 종교단체, 직장이나 학교, 홍보, 가족이나 친구 및 동료의 권유 인터넷, 기타</li> </ul>                       |

**<표 3-24> 자원봉사 인지경로**

자원봉사 인지경로에 대한 질문은 Giving Korea와 사회조사(2011년, 2013년)에서 실시하였다. 두 조사 모두 보기는 비슷했지만 질문은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Giving Korea는 ‘현재 가장 많이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곳’을 알게 된 방법을 묻고 있으나 사회조사는 ‘자원봉사를 했던 곳’을 알게 된 방법을 물어보고 있다. 사회조사의 경우 지금은 자원봉사를 그만 둔 곳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현재까지 활동하는 곳까지 포함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으며, 또한 여러 곳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경우를 파악하는데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 ② 조사결과

| 조사명          | 조사연도 | 조사결과  |
|--------------|------|---|
| Giving Korea | 201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중매체 : 1.6%</li> <li>인터넷 : 2.5%</li> <li>가족이나 지인 : 27.9%</li> <li>홍보 및 요청 : 23.2%</li> <li>직장 : 7.8%</li> <li>종교단체 : 22.0%</li> <li>개인 참여 모임 : 12.0%</li> <li>모름/무응답 : 2.9%</li> </ul> |

|          |      |  |
|----------|------|--|
| 사회<br>조사 | 201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중매체 : 3.3%</li> <li>• 종교단체 : 12.1%</li> <li>• 직장, 학교 : 52.4%</li> <li>• 홍보 : 8.0%</li> <li>• 가족, 친구 및 동료 등의 권유 : 20.0%</li> <li>• 인터넷 : 3.1%</li> <li>• 기타 : 1.1%</li> </ul> |
|----------|------|--|

**<표 3-25> 조사결과: 자원봉사 인지경로**

Giving Korea의 조사 결과 가족이나 지인을 통해(27.9%), 시설/기관/단체에 의한 직접 홍보 및 요청을 통해(23.2%), 종교단체를 통해(22.0%) 등의 순서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회조사의 조사결과는 직장, 학교를 통해서가 52.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뒤를 이어서 가족, 친구 및 동료 등의 권유 20.0%, 종교단체를 통해 12.1%, 시설, 단체의 직접 홍보(방문, 이메일, 우편 등) 8.0% 등의 순서인 것으로 나타났다.

Giving Korea와 사회조사의 조사결과를 비교하면 순서의 차이는 있으나 자원봉사 인지경로는 대체로 가족이나 지인, 종교단체 등이 많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직장이나 학교를 통한 인지의 경우 두 조사의 조사결과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Giving Korea 7.8%, 사회조사 52.4%). 또한 자원봉사를 하는 단체의 홍보나 요청에 의한 것이 Giving Korea는 23%, 사회조사는 8%로 나타나서 역시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사회조사가 15세 이상의 가구원을 조사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학교를 통한 자원봉사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응답자로 포함되었기 때문이라는 추론이 가능한 조사 결과이다.<sup>29)</sup>

29)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실제 조사대상이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어떻게 차이가 나고 있는지를 면밀하게 고려해야만 한다.

#### 4) 자원봉사 미참여 이유

##### ① 설문내용

| 조사명          | 조사연도 | 설문문항 주요 내용  |
|--------------|------|---|
| Giving Korea | 201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원봉사를 하지 않을 경우 가장 큰 이유 : 8가지 보기 중 택일</li> <li>* 보기 : 관심 없음, 내 책임 아님, 자원봉사 대상자(처)에 대한 신뢰도 낮음, 개인 상황의 불투명성, 자원봉사 방법 모름, 요청 받은 적 없음, 모름/무응답</li> </ul>  |
| 서울시 복지패널     | 201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원봉사를 하지 않을 경우 가장 큰 이유 : 6가지 보기 중 택일</li> <li>* 보기 : 관심 없음, 나의 의무 아님, 시간적 여유가 어떻게 될지 모름, 자원봉사 방법 모름, 요청 받은 적 없음, 기타</li> <li>• 자원봉사를 결정하는 가장 큰 이유</li> <li>* 보기: 사회에 대한 책임감, 종교적 신념, 동정심 및 나눔에 의한 행복감, 나눔을 실천하는 문화, 시간적 여유, 자원봉사기관 등의 요청, 직장 내 의무적 봉사활동, 기타</li> </ul> |

<표 3-26> 자원봉사 미참여 이유

자원봉사 미참여와 관련한 이유를 파악하는 질문이 있는지 살펴본 결과 Giving Korea와 서울시복지패널에서(2010)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Giving Korea와 서울시복지패널의 설문문항과 보기는 비슷하였다. Giving Korea는 자원봉사활동을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만을 물어본 반면, 서울시복지패널은 하지 않는 이유와 함께 자원봉사활동을 결정하는 가장 큰 이유도 물어보았다.

##### ② 조사결과

| 조사명          | 조사연도 | 설문문항 주요 내용   |
|--------------|------|--|
| Giving Korea | 201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원봉사를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li> <li>관심이 없어서 : 22.3%</li> <li>나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 4.2%</li> <li>대상자나 시설/기관/단체를 신뢰할 수 없어서 : 4.0%</li> <li>개인적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 47.8%</li> <li>어디에, 어떻게 자원봉사를 해야 하는지 몰라서 : 7.6%</li> <li>직접적인 요청을 받은 적이 없어서 : 10.5%</li> <li>모름/무응답 : 2.9%</li> </ul> |

|          |      |  |
|----------|------|--|
| 서울시 복지패널 | 201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원봉사를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li> <li>관심이 없어서 : 25.5%</li> <li>나의 의무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 21.5%</li> <li>현재, 그리고 앞으로 나의 시간적 여유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 40.3%</li> <li>어디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서 : 4.7%</li> <li>직접적인 요청을 받은 적이 없어서 : 5.6%</li> <li>기타 : 2.4%</li> <li>• 자원봉사활동을 결정하는 가장 큰 이유 : 조사결과 제시되지 않음</li> </ul> |
|----------|------|--|

**<표 3-27> 조사결과 : 자원봉사 미참여 이유**

자원봉사를 참여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Giving Korea의 조사 결과 나의 시간 등 개인적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47.8%), 자원봉사에 대해 관심이 없어서(22.3%), 직접적인 요청을 받은 적이 없어서(10.5%) 등이 주요 이유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울시복지패널의 설문조사 결과 자원봉사활동을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지금 현재, 그리고 앞으로의 나의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가 40.3%, 자원봉사활동에 관심이 없어서 25.5%, 자원봉사활동이 나의 의무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21.5%, 직접적인 요청을 받은 적이 없어서 5.6% 등의 순서인 것으로 나타났다.

두 기관의 조사결과 응답비율의 차이는 있지만 자원봉사를 하지 않는 주요 이유가 응답자 개인의 상황이 어렵다는 점, 자원봉사에 대한 관심 부족, 책임감 부족 등인 것으로 파악할 수 있는데 이 조사결과와는 앞에서 제시한 기부하지 않는 이유와도 비슷하다.

### 5) 전문성을 활용한 자원봉사 여부

#### ① 설문내용

| 조사명          | 조사연도         | 설문문항 주요 내용   |
|--------------|--------------|--|
| Giving Korea | 201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원봉사 방법 : 단순노력, 전문노력, 두 방법 모두, 모름/무응답 중 택일</li> </ul>   |
| 사회 조사        | 2011<br>2013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난 1년간(2011년 7월 15일~2013년 7월 14일) 직업, 자격증, 전공 또는 일정 교육과정 이수 관련 봉사활동 여부 : 11가지 보기 중 택일</li> <li>* 보기 : 이마용, 요리, 의료, 아동학습지도, 통역 및 번역, 공연, 평생학습 관련, 전문상담, 운전, 주택수리 및 유지보수, 기타</li> </ul> |

**<표 3-28> 전문성을 활용한 자원봉사 여부**

전문성을 활용한 자원봉사 여부는 Giving Korea와 사회조사(2011, 2013년)가 조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Giving Korea는 자원봉사 방법을 단순노력, 전문노력 등으로 단순하게 구별하여 응답자가 전문적 노력이라고 응답하는 비율을 기반으로 전문성을 활용한 활동을 제시하는 방식이다. 반면 사회조사는 전문성을 활용한 자원봉사와 관련하여 11가지 정도의 보기를 제시하여 각 보기에 대한 봉사경험 비율을 조사하고 있다.

## ② 조사결과

| 조사명          | 조사연도 | 설문문항 주요 내용   |
|--------------|------|--|
| Giving Korea | 201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순노력봉사 : 85.6%</li> <li>• 전문노력봉사 : 6.7%</li> <li>• 두 방법 모두 : 2.5%</li> <li>• 모름/무응답 : 5.1%</li> </ul>   |
| 사회조사         | 201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성을 활용한 봉사경험 있음 : 15.9%</li> <li>  이미용 : 4.6%</li> <li>  요리 : 9.7%</li> <li>  의료 : 11.6%</li> <li>  아동학습지도(방과 후 교실 등) : 24.1%</li> <li>  통역 및 번역 : 2.8%</li> <li>  공연(악기연주, 춤, 연극 등) : 9.1%</li> <li>  평생학습관련(컴퓨터, 한글, 악기 등) : 7.7%</li> <li>  전문상담(법률, 세무 등) : 5.0%</li> <li>  운전(장애인 이동 지원, 구호물품 배달 등) : 9.6%</li> <li>  주택수리(보일러, 도배 등) 및 기타 유지보수 : 10.1%</li> <li>  기타 : 5.7%</li> <li>• 전문성을 활용한 봉사경험 없음 : 84.1%</li> </ul> |

<표 3-29> 조사결과 : 전문성을 활용한 자원봉사 여부

전문성을 활용한 자원봉사 여부를 조사한 결과 Giving Korea는 전문노력봉사가 6.7%, 사회조사는 전문성을 활용한 봉사경험이 15.9%로 나타나 다소 차이가 있었다. 이것은 조사설계방법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데, Giving Korea는 설문 문항에서 단순노력, 전문노력 등으로 단순하게 구별하여 응답자가 전문성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지 않았다. 반면 사회조사는 전문성을 활용한 자원봉사의 보기를 11가지 정도로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이러한 분야에서 할

동하는 경우를 전문적 봉사활동이라고 보았다. Giving Korea의 응답자들은 전문성이라는 것을 사회조사에서와 같은 구체적인 분야까지 포함하지 않고 매우 협소하게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다.

## (2) Giving Korea 단독 문항 및 결과

Giving Korea에서 단독으로 조사한 설문 문항들을 살펴본 결과 종교단체를 위한 봉사와 관련한 조사내용이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복지패널에서는 자원봉사 여부, 시간, 횟수를 묻는 설문 문항의 보기들 중 하나로서 ‘종교단체를 위한 봉사’를 제시하고 그 결과도 제시하고 있다. Giving Korea의 경우 서울시복지패널과 다르게 관련 문항을 분리하여 조사를 진행하고 결과를 제시했기 때문에 본 보고서는 Giving Korea 단독 문항으로 간주하였다.

| 조사내용        | 설문문항 주요 내용   |
|-------------|--|
| 종교단체를 위한 봉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작년 한 해 동안(2011년 1월~12월) 종교단체를 위한 봉사활동 경험 여부, 활동 시 1년 동안 봉사한 시간</li> </ul> |

<표 3-30> Giving Korea 단독 조사내용 및 설문문항 주요 내용

## (3) 타 조사 기관 단독 문항 및 결과

타 조사 기관에서 단독으로 조사한 설문 문항들을 살펴본 결과 향후 자원봉사활동 의사를 묻는 문항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1) 향후 자원봉사활동 의사

### ① 설문내용

| 조사명      | 설문문항 주요 내용   |
|----------|--|
| 사회조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향후 자원봉사활동 여부 : 기회 있으면 하겠음, 하고 싶지만 지금 어려움, 생각 없음 중 택일</li> <li>* 자원봉사 경험자와 미경험자를 구별하여 각각 조사</li> </ul>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향후 2년 이내 자원봉사활동 여부 : 있다, 없다 중 택일</li> </ul>   |
| 서울시 복지패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향후 1년 이내 자원봉사활동 여부 : 12가지 보기별로 있다, 없다 중 택일</li> <li>* 보기: 종교단체를 통한 원조, 종교단체를 위한 봉사, 자선단체, 해외구호, 교육기관, 의료기관, 문화예술단체, 환경 및 동물보호(단체), 공공기관 및 지역사회, 친척이나 친구 및 가까운 이웃, 부랑인이나 노숙인, 정치인(단체), 기타</li> </ul> |

<표 3-31> 향후 자원봉사활동 의사

앞으로의 자원봉사활동 여부는 사회조사와 서울시복지패널 2곳에서 묻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조사는 앞으로의 자원봉사활동 여부만을 묻고 있지만 서울시복지패널은 자원봉사 활동분야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각각의 분야에 대한 앞으로의 자원봉사활동 여부를 묻고 있었다.

### ② 조사결과

| 조사명  | 조사연도         | 조사결과           |          |       |           |       |
|------|--------------|----------------|----------|-------|-----------|-------|
|      |              | 응답/연도          | 자원봉사 경험자 |       | 자원봉사 미경험자 |       |
|      |              |                | 2006     | 2009  | 2006      | 2009  |
| 사회조사 | 2006<br>2009 | 기회가 주어지면 계속하겠다 | 72.5%    | 66.8% | 17.7%     | 14.6% |
|      |              | 하고 싶지만 지금은 어렵다 | 24.4%    | 28.8% | 57.4%     | 57.8% |
|      |              | 할 생각이 없다       | 3.1%     | 4.5%  | 24.8%     | 27.6% |

|             |               |  |
|-------------|---------------|--|
| 사회조사        | 2011          | • 향후 2년 이내에 자원봉사활동 의사: 있음 45.6% 없음 54.4% |
| 서울시<br>복지패널 | 2008<br>~2010 | • 해당 설문에 대한 조사결과 제시하지 않음                 |

**<표 3-32> 조사결과 : 향후 자원봉사활동 의사**

앞으로의 자원봉사활동 의사에 대한 조사결과 2006년과 2009년의 사회조사는 자원봉사 경험자와 미경험자를 구별하여 조사결과를 제시하고 있고 2011년 사회조사는 단순하게 자원봉사 활동 의사가 있다, 없다로만 구별하여 조사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자원봉사 경험자의 경우 절반이 훨씬 넘는 72.5%(2006년), 66.8%(2009년)의 응답자가 기회가 주어지면 계속하겠다고 응답했고, 24.4%(2006년), 28.8%(2009년)는 하고 싶지만 지금은 어렵다고 대답했다. 할 생각이 없는 응답자는 3.1%(2006년), 4.5%(2009년)에 불과했다. 반면에 자원봉사 미경험자의 경우 조사 대상자의 대부분이 하고 싶지만 지금은 어렵거나(2006년 57.4%, 2009년 57.8%), 할 생각이 없다(2006년 24.8%, 2009년 27.6%)라고 응답했다.

## IV. 요약 및 제언

### 1. 비교 결과 요약과 분석

본 연구는 2000년대 이후 국내의 기부 및 자원봉사 관련 조사연구에 대한 전체 현황을 살펴보고, 그 조사연구의 내용과 결과에 대한 비교를 통해서 관련 조사연구들이 어떤 차이와 유사성을 지니는지 그리고 각 조사연구들이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러한 비교를 통해 아름다운재단의 Giving Korea가 실시하고 있는 기부, 자원봉사 관련 실태조사의 지속 여



부, 진행 방향 등을 제시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서 2000년대 이후 국내에서 매년 또는 2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정기적으로 실시한 전국 단위의 기부, 자원봉사 관련 조사연구를 대상으로 구체적인 조사 현황과 결과를 수집하고, Giving Korea의 조사내용 및 결과와 비교하였다. 비교를 위해 수집한 설문 문항과 결과는 모두 기부와 자원봉사 두 영역 중 한 곳으로 분류하였고, 다시 두 영역별로 Giving Korea와 타 조사연구의 중복되는 설문문항과 결과, Giving Korea 단독 설문문항 그리고 타 조사연구의 단독 설문문항과 결과로 구별하여 정리하였다.

기부와 관련해서는 Giving Korea와 타 조사연구가 그 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와 Giving Korea 단독으로 조사한 내용 두 가지로 구분하였는데, 이것은 다른 조사연구들이 단독으로 기부관련 문항을 구성하여 조사한 경우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대부분의 기부관련 조사연구들이 한국사회의 다양한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여러 분야에 걸친 설문 문항을 구성하면서 기부 관련 현황조사를 일부분으로 포함시키기 때문이다. 따라서 Giving Korea와 타 연구에서 중복되는 조사 문항은 전반적인 기부현황, 즉 기부참여율, 기부금액, 기부분야 등 매우 기본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이를 좀 더 자세히 보면 중복되는 조사의 내용은 기부여부, 기부횟수, 기부금액 등의 기본사항과 기부의 정기성, 기부 대상 인지 경로, 기부 이유, 향후 기부 의사, 기부금 지출 희망 분야, 유산 기부에 대한 인식, 기부 문화 확산 등이었다. 대체로 많은 조사들에서 중복이 되는 문항들은 기부와 관련된 기본적인 현황들을 보여주는데 필요한 매우 핵심적 내용들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 다른 조사연구에서는 조사되지 않고 Giving Korea에서만 조사되는 내용은 기부 방법, 기부금액 증액 여부, 기부 대상 확대 여부, 경조사 및 종교단체 기부 여부, 기부 중단과 변경 관련, 기부관련 느낌, 현재 기부대상자(처) 관련, 기부 시 고려사항, 나눔 교육에 대한 인식, 기부와 인터넷 활용, 시설/기관/단체에 대한 신뢰도 등이었다. 이러한 내용들은 기부의 전반적 실태를 파악하는데 필수적인 내용들은 아니지만, 한국인의 기부의 특성, 예를 들어 어떤 요인들이 기부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또는 앞으로의 기부의 경향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 등 보다 구체적인 특성에 대해 이해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내용들이라고 볼 수 있다.

자원봉사와 관련해서 Giving Korea와 타 조사연구가 중복되는 조사내용은 자원봉사참여여부, 자원봉사횟수 및 시간 등의 기본사항과 자원봉사 활동의 정기성, 자원봉사 인지경로, 자원봉사 미참여 등의 이유, 전문성을 활용한 자원봉사 여부이다. 이러한 중복문항들은 기부관련 내용과 마찬가지로 자원봉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것이다. 이외에 Giving Korea가 종교단체를 위한 봉사활동에 대한 내용을 단독으로 조사하고 있고, 타 연구가 단독으로 조사하고 있는

내용은 향후 자원봉사활동 의사에 대한 것이었다.

기부 영역의 경우 Giving Korea가 타 조사연구에 비해 설문문의 다양성과 포괄성, 조사 결과 분석의 깊이 등에서 상당히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원봉사에 대한 연구 또한 Giving Korea의 조사내용이 다른 조사연구의 내용을 거의 대부분 포괄하고 있었다. 따라서 Giving Korea 조사연구를 제외한 대부분의 기부, 자원봉사 관련 조사연구는 설문 문항이 다소 단편적이거나 다양하지 못한 한계를 지녔다. 이것은 조사연구의 목적이 다르다는 점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Giving Korea를 제외한 다른 조사연구에서 진행한 기부와 자원봉사 관련 조사는 대부분 전반적인 사회 동향 파악을 목적으로 하는 조사연구의 일부분으로서 실시되었다. 따라서 기부와 자원봉사에 대한 설문 문항은 매우 제한적으로 포함될 수밖에 없다. 기부 및 자원봉사와 관련한 다양하고 깊이 있는 연구와 분석을 위해서는 기부와 자원봉사 관련 동향 파악이나 분석 등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조사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Giving Korea는 기부와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전문적 조사연구로서 큰 의미를 지닌다고 봐야할 것이다.

하지만 연구방법론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Giving Korea는 조사시점에서 유사한 규모의 다른 표본을 대상으로 횡단적 조사연구를 진행하지만 최근의 다른 조사연구들은 점차 동일한 대상을 추적해가는 패널조사형태로 이루어져서 종단연구가 가능하도록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따라서 복지패널이나 재정패널 등의 조사연구들은 그 설문문의 내용이 단편적이고,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기부현황이나 자원봉사와 관련한 기본적 내용에 대한 변화경향을 파악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또한 표본의 규모라는 측면에서도 Giving Korea에 비해 다른 연구들이 대규모 표본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조사결과의 대표성이라는 부분에서도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연구방법론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조사대상, 동일한 내용에 대한 질문방식, 그리고 조사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한 정확한 정의 등에서 각 조사연구들은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차이는 조사결과의 차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서 각 조사연구들은 조사대상과 관련하여 개인 또는 가구주를 통한 가구 등의 조사단위나 표본의 연령 구성 등에서 차이를 보였다. 응답을 개인별로 하게 하는 경우, 그리고 가구를 단위로 하여 한 가구를 대표하는 응답자가 자신 및 모든 가구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게 하는 경우는 기부 및 자원봉사의 참여, 기부금액이나 횟수 등에서 차이를 초래한다. 즉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Giving Korea는 가구를 단위로 하여 조사하는 경우보다 참여율 등에서 높게 추정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가구단위로 가구주나 대표 응답자가 가구원에 대해서도 응답하게 하면 모든 개별 가구원과 관련된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응답자의 구성 등에 있어서 연령의 범위를 어떻게 정하는가도 기본적인 기부 및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추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경제적인 능력이나 사회활동의 범위가 성인과는 다른 10대 또는 70~80대의 고령자를 표본에 포함시키는 경우 참여율, 기부금액, 자원봉사 참여횟수 등이 그렇지 않은 경우와는 다를 가능성이 존재한다.

구체적인 내용을 질문하는 방식도 각 조사연구마다 상이하였다. 예를 들어 Giving Korea의 경우 같이 현금기부와 현물기부를 각각 분리된 방식으로 질문하는가, 아니면 이를 구분하지 않고 기부라는 행위 그 자체로 질문하는가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제시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Giving Korea와 같이 세세한 기부처를 제시하여 기부나 자원봉사활동에 대해 질문하는가 등도 결과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면 Giving Korea와 같이 세부적인 기부처별로 현금기부와 현물기부를 구분하거나 기부액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방식으로 응답하게 되면 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응답을 이끌어낼 수 있다.

## 2. 기부 및 자원봉사 조사연구 관련 제언

기부 및 자원봉사와 관련한 Giving Korea 주도의 정기적인 조사와 분석은 지속되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은 이 영역에 대한 정기적 조사와 분석, 정책적 대안 제시라는 측면에서 Giving Korea가 지니는 의미와 필요성에 대한 논의로 대신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Giving Korea는 기부와 자원봉사에 대한 조사의 지속성이라는 측면에서 의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2000년대 이후 기부와 자원봉사에 대한 연구가 양적으로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 성장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조사 기관이 연구의 규모나 조사 가능성에 대한 고민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조차도 지속적으로 포함되지 못하는 등 조사의 지속성이라는 부분에서 일정 정도의 한계를 보인다. 이에 반하여 Giving Korea는 2001년부터 2년 주기로 꾸준히 관련 조사를 실시해왔다는 점에서, 그리고 기본적인 문항 이외에도 매 시기에 맞추어 특징적으로 논의될 만한 내용을 첨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둘째, Giving Korea의 조사내용은 매우 포괄적이며, 심도 깊은 논의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까지도 포함하고 있어, 다른 조사연구에 비해 기부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전문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다.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다른 조사연구의 경우 매우 기본적인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내용만을 다루는데 그 의의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Giving Korea의 자료는 관련 연구자들이 자원 봉사나 기부와 관련된 다양한 요인이나 경향 등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기반이 되어왔다.

그러나 Giving Korea가 기부와 자원봉사와 관련하여 중요한 연구기반이 되어왔다고 하더라도 더욱 체계적이고 심도 깊은 분석 등을 지향하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다. 우선 기부와 자원봉사에 대한 조사 문항 중 조사 결과를 지속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공통 문항을 체계화하여 이를 다른 조사 연구와 공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연구방법상의 차이는 연구결과의 차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현황파악을 위해서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과제는 하나의 조사기관에 의해서가 아니라 다양한 조사기관들의 협력을 기반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소규모라도 종단적 연구가 가능하도록 최소 3년 이상의 패널자료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Giving Korea 조사연구의 내용을 변화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복지패널이나 재정패널 등에 의해서 이미 종단적 패널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들 조사연구가 기부와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전문적 연구는 아니라는 점 때문에 전문적인 분석에서는 다소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따라서 Giving Korea와 같은 기부 및 자원봉사의 현황파악을 기본 목적으로 하는 조사연구가 횡단적 조사와 종단적 조사를 병행하는 것은 국내 기부와 자원봉사 현황과 특징 등을 더욱 심도있게 파악, 분석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다.